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계정 溪亭

1532년 회재 이언적이 독락당의 관어대 觀魚臺 에 세운 정자

전시를 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의 일환으로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부터 경주의 여주이씨 독락당 종가의 고문헌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인 고문헌 3,043종의 서지 및 이미지 데이터는 고문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여주이씨 독락당 종가는 조선전기의 명신 회재 이언적 李彦迪, 1491~1553 선생이 1532년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학문에 정진하며 살았던 유서 깊은 한옥으로, 보물 제413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 이전인 선생과 손자 이준 선생을 거쳐 500여 년간 역사가 시계열적으로 담겨 있는 고문헌의 보고입니다. 소장 고문헌 중 119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중한 고문헌 정보를 국민에게 아낌없이 공개해 주신 주손 胄孫, 종손 이해철 선생과 여주이씨 독락당 가문의 아름다운 결정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평생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가와 백성을 위하며 공직자의 모범을 살았던 회재 이언적 선생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아버지 이언적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자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며 500년 명문가의 기틀을 다진 아들 이전인, 손자 이준 선생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전국의 개인과 문중 등 민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고문헌이 우리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 혜 란**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9년 10월 15일(화)부터 12월 15일(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개최한 특별전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의 전시도록이다.
2.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소장처, 청구기호, 발행사항, 형태사항, 보물번호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3. 표지는 『여주이씨세보』 1956 에 수록된 옥산마을의 지도를 기본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CONTENTS

09

1. 역사의 보물, 독락당의 고문헌

19

2. 회재 이언적, 공직자의 모범을 살다

(1) 1491~1531 : 끊임없는 자성의 공직 생활 그리고 파직 20
(2) 1532~1537 : 독락당과 옥산마을, 유학자의 이상 공간을 만들다 32
(3) 1537~1546 :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는 공직 생활 그리고 또 파직 40
(4) 1547~1553 : 강계 유배, 명저를 남기다 49
(5) 전국의 선비, 회재 이언적 선생을 기억하며 따르다 57

59

3. 아들과 손자,
옥산문중 명문가의 기틀을 다지다

(1) 아들 이전인, 아버지를 향한 지극 효성 60
(2) 문원공 이언적, 종묘의 명종 묘정에 배향되다 66
(3) 이전인, 회재 이언적의 유일한 제자 82
(4) 손자 이준, 아버지 이전인의 유업을 잇다 92
(5) 문원공 이언적, 동방오현 東方五賢 으로 문묘에 종사되다 101
(6) 신분의 제약을 넘어 명문가의 기틀을 다지다 103

115

4. 500년의 전통과 명예를 잇다

(1) 가문의 심장, 독락당과 어서각을 영구 보전하라 116
(2) 명문 고위 공직자와의 교류를 지속하다 123
(3) 옥산구곡, 성리학의 이상향 127
(4) 공직의 가치 은은한 역사의 예향 禮鄕 을 꿈꾸다 136

143

5. 가문의 자산에서 국민의 자산으로

1.

역사의 보물, 독락당의 고문헌

우리나라는 경기도 강화의 정족산사고,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사고, 경상북도 봉화의 태백산사고, 전라북도 무주의 적상산사고와 전주사고 등 국가가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했던 '사고史庫'라는 세계적으로 특별한 도서관 유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은 국립왕실연구기관이자 도서관인 집현전과 규장각, 국립대학 성균관의 서고인 존경각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국 330여 개 공립학교 성격인 향교의 서고 존경각 또는 장서각, 400여 개 사립학교 성격인 서원의 서고 등 전국 곳곳에 도서관 유적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문신 위주의 중앙집권국가이자 과거제라는 관리 선발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던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양반에게 중앙정부의 관리가 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자 목표였고, 시험공부와 자기 수양, 학문적 연구를 위해 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생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토를 전장으로 만들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35년 동안 국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해방 후의 혼란과 한국전쟁 등 많은 가문의 고서와 고문서가 엄청난 시련을 안고 흩어지게 만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모든 시련의 역사를 이겨내고 선조의 고서와 고문서를 가문의 보물로 여기며 500여 년 온전히 지켜온 경주 여주이씨 옥산문중의 종가 독락당과 어서각이 있어 소개합니다.

독락당은 어디에 있는가

독락당 獨樂堂

회재 이언적 李彦迪, 1491~1553 은 권신 김안로의 재 등용을 반대하다 1531년 중종 26 에 파직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1532년에 아버지 이번 1463~1500 때부터 경영하던 옥산마을의 별장 안에 사랑채인 독락당과 정자인 계정 溪亭 을 새로 짓고 어머니 경주손씨를 모시고 학문에 정진하며 유배가기 전까지 살았다.

회재 선생은 강계의 유배 생활 7년 동안 함께 살며 지극정성을 다한 아들 이전인 1516~1568 에게 독락당을 상속하였고, 이후 독락당은 여주이씨 옥산문중의 종가로 이해철 1949~ 주손 胄孫 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 한옥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소중하게 간직해 왔다.

독락당은 좁게는 사랑채만을, 넓게는 안채·사랑채 독락당 ·계정·어서각을 포함한 한옥 전체를 가리킨다. 한옥과 자연의 만남, 그리고 그 합일의 극치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옥 건축물로 인정받아 1964년 11월 14일에 보물 제413호로 지정되었다.[1]

1
이 도록에서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은 편집자가 작성한 것이다.

어서각 御書閣

아들 이전인은 책과 문서를 영구히 보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1554년에 어서각 御書閣 이라는 특별한 서고를 독락당 안에 만들었다. 어서각은 중종·인종·명종 등 '임금이 하사한 책과 문서가 보관된 서고'라는 뜻으로, 이후 여주이씨 종가에서 만들거나 받은 책과 문서와 편지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 보전되었다.

독락당의 어서각에는 고서 384종, 고문서 2,540종 등 총 3,043종의 고문헌이 보존되어 있다. 옥산문중의 500여 년 긴 역사가 시계열적으로 담겨 있는 역사의 보고다. 소장 고문헌 중 119종은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독락당

어서각

독락당의 어서각 소장 보물 자료 목록

보물 번호	보물 자료	지정일
제524-1호	『사마방목(司馬榜目)』(1책, 금속활자본, 1513)	1970.12.30.
제524-2호(1~13)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1책, 목판본, 1539) 『여어편류(儷語編類)』(2책, 금속활자본, 1542)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1책, 금속활자본, 1543) 『잠명(箴銘)』(1책, 필사본, 1547) 『황화집(皇華集)』(1책, 금속활자본, 1546) 『구인록(求仁錄)』(1책, 목판본, 1550) 『관서추정일기(關西趨庭日記)』(2책, 필사본, 1549-1553)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1책, 금속활자본, 1571) 「퇴계선생수찰(退溪先生手札」(2장, 필사본, 1566.1567) 「서애서독(西厓書牘)」(13장, 필사본, 1586-1604) 「한강서독(寒岡書牘)」(35장, 필사본, 1607-1618) 「제현서독(諸賢書牘)」(21장, 필사본, 미상) 「수간(手簡)」(17장, 필사본, 미상)	2006.7.18.
제526-1호	「해동명적(海東名跡)」(2첩, 탁본, 1425)	1970.12.30.
제526-2호	「원조오잠사산오대(元朝五箴四山五臺)」(17장, 탁본, 1500년대 중반)	2006.9.1.
제586호 (1~5)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1책, 필사본, 1547-1553)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1책, 필사본, 1547-1553)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9책, 필사본, 1547-1553) 『진수팔규(進修八規)』(1책, 필사본, 1547-1553) 『봉선잡의(奉先雜儀)』(1책, 필사본, 1547-1553)	1975.5.1.
제1473호 (1~98)	1517-1650 동안의 고문서 98종 - 국왕발행왕명서(敎書) 21점 - 승정원승지발행왕명서(有旨) 7점 - 관청발행임명장(給牒) 1점 - 임금에게 올리는 글(上疏草) 2점 - 첩(帖) 1점 - 관청발급문서(立案) 12점 - 관청에 제출한 청원서(所志類) 7점 - 상속분배문서(分財記類) 14점 - 노비거래문서(奴婢文記) 18점 - 토지거래문서(土地文記) 14점 - 편지(簡札) 1점	2006.7.18
합계	119종 (고서 14종, 고문서 103종, 탁본 2종)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에 접속

보물 제○○○호

검색하면 독락당 소장 보물 자료의 주요 내용과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회재 이언적 연보

1491년 1세	경주 양동마을에서 태어남
1500년 10세	아버지 이번 李蕃, 1463~1500 돌아가심
1502년 12세	외삼촌 손중돈 孫仲暾, 1463~1429 에게 배움
1508년 18세	함양박씨와 결혼
1513년 23세	생원시에 합격
1514년 24세	별시문과에 합격
1515년 25세	경주향교의 종9품 주학교관 州學敎官 에 임명되고, 옥산마을 별장의 안채인 역락재 亦樂齋 를 지음
1518년 28세	할아버지 이수회 李壽會, 1431-1518 돌아가심
1521년 31세	중종 임금의 명으로 이적 李迪 에서 이언적 李彦迪 으로 개명
1523년 33세	정6품의 성균관 전적 典籍 ·병조좌랑 兵曹佐郎 ·이조좌랑 吏曹佐郎 에 차례대로 임명됨
1524년 34세	경상도 인동현감에 임명됨
1530년 40세	종3품의 사간원 사간 司諫 에 임명됨
1531년 41세	김안로의 재 등용에 반대하다 김안로 일당의 배척을 받아 좌천 후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옴
1532년 42세	옥산마을 별장에 독락당과 계정을 새로 짓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리학 연구에 전념
1537년 47세	김안로 일당의 몰락 후 종 5품의 홍문관부교리 弘文館副校理 , 정4품의 홍문관응교 弘文館應敎 에 임명됨
1539년 49세	종2품의 전주부윤 全州府尹 에 임명되고, 「일강십목소 一綱十目疏 」를 지어 아들 이전인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올리게 함
1540년 50세	종2품의 예조참판 禮曹參判 , 정3품의 성균관 대사성 大司成 , 종2품의 사헌부 대사헌 大司憲 에 임명됨
1542년 52세	정2품의 이조판서·형조판서·예조판서에 임명됨
1543년 53세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됨
1544년 54세	종1품의 의정부 우찬성 右贊成 에 임명됨
1546년 56세	종1품의 의정부 좌찬성 左贊成 에 임명되었으나 윤원형 尹元衡 일당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관직에서 물러남

1547년 57세	윤원형 일당이 조작한 양재역벽서사건에 선생을 무고하게 연루시켜 삭탈관직 후 강계로 유배시킴
1548년 58세	어머니 경주손씨 1469?~1548 돌아가심
1549년 59세	『대학장구보유』 지음
1550년 60세	『봉선잡의』, 『구인록』, 「진수팔규」 지음
1553년 명종 8 63세	『중용구경연의』를 완성하지 못한 채 강계 유배지에서 돌아가심
1566년 명종 21	아들 이전인이 「진수팔규」를 명종 임금에게 올리자 관직을 회복시킴
1568년 선조 1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에 추증되고 아들 전인이 임금에게 사은소를 올림
1569년 선조 2	선조 임금이 문원 文元 이란 시호 諡號 를 내렸으며 종묘에 배향됨
1572년 선조 5	독락당 남쪽에 서원 건립
1573년 선조 4	서원에 이언적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선조 임금으로부터 옥산서원으로 사액됨
1575년 선조 8	『회재선생문집』이 목판본으로 간행됨
1610년 광해군 2	성균관의 문묘에 종사 從祀 됨

사관은 회재 이언적의 삶을 이렇게 평했다.

이달에 이언적이 졸하였다.…(중략)…남달리 영특하였고 타고난 자질이 도 道 에 가까웠다. 어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깊이 생각하고 실천에 힘썼으며, 예 禮 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고 성품 또한 과묵하였으며 힘써 재능을 숨겼다.…(중략)…조정에 나설 때에는 나아감과 물러섬, 의견을 아룀에 있어 정직하고 분명하였으며, 늘 요순 堯舜 과 같은 임금의 백성으로 자임하였기에 비록 귀양 가 있는 중에도 오히려 정성을 다하여 조정을 잊지 않았고,…(중략)…그의 학문이 (누구에게 배운) 연원은 없으나 스스로 공자의 학문에 분발하니 은연중 빛나서 덕이 행실에 부합되고 문장이 붓끝에서 나오면 교훈되는 말이 후세에 전해져 동방에서 찾아보면 자못 비견할 사람이 드물었다. 선조 원년에 영의정에 추증하였고 시호는 문원 文元 이라 하였다. 『명종실록』1553년(명종 8) 11월 30일 2

2
이 도록에서 인용하는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번역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www.history.go.kr)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제공하는 번역문을 가리킨다. 번역문구 중에는 도록 편집자가 현대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고친 부분도 있다.

회재 이언적의 유품

1 먹을 가는 데 사용하는 문방구

2 벼루(硯)에 먹을 갈기 위해 필요한 물(水)을 담아두던 병(甁)

3 옥으로 만든 도장

4 스물세 살인 1513년(중종 8), 생원시 합격 후 착용했다고 전함
* 품대(品帶) – 관리가 조정에 나갈 때 입는 공복(公服)에 품계(品階)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허리에 두른 띠(帶)

5 스물네 살인 1514년(중종 9), 과거 별시에 급제 후 착용했다고 전함

6 마흔여덟 살인 1538년(중종 33) 병조참지에 제수되었을 때 착용했다고 전함

7 쉰세 살인 1543년(중종 38) 홍문관제학 재직시 착용했다고 전함

8 쉰다섯 살인 1545년(인종 원년) 좌찬성 재직시 착용했다고 전함

3
이 도록에 제시된 독락당 소장 자료의 모든 이미지는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2007, 『바위틈에 핀 들꽃』(명가의 고문서 ④ 여주이씨 독라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스캔 받아 사용한 것이다.

1 벼루(硯)[3]

2 연수병(硯水甁)

3 옥직인(玉職印)

4 각품대(角品帶)

5 복두(幞頭)

6 옥갓끈

7 각화품대(各花品帶)

8 서각품대(犀角品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2.
회재 이언적, 공직자의 모범을 살다

공직자는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입니다. 회재 선생은 국가의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자성,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설정하고는 63년의 생애 동안 철저하게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정과 청렴의 정치로 일관했으며 옳은 것에 대해 굽히지 않으면서도 권신과 간신이 들끓는 정치의 세계를 더럽다 피하지 않은 채 혼신을 기울여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파직과 유배 등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국가와 백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행동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재 선생은 종1품의 좌찬성까지 지낸 최고위 공직자이자, 『중용구경연의』 등 역사에 빛나는 많은 저술을 남긴 덕망 있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는 아들 이전인을 제외하면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 교육이 인재 양성을 위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당파를 만들어 당리당략에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재 선생의 삶은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행복한 삶만을 목표로 추구했던 공직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회재 선생의 삶과 작품, 그리고 유품을 통해 현대의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1 1491~1531
끊임없는 자성의 공직 생활 그리고 파직

스물한 살의 이언적,

혼탁한 세상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인 仁 의 정치를 설파하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공자의 모습을 닮겠다는 큰 포부를 「문진부 問津賦 」에 담아내다.

아래로는 백성들의 곤궁함을 슬퍼하였고	下悲人窮 하비인궁
위로는 천명을 두려워하였네	上畏天命 상외천명
천하를 바삐 떠돌아다니며	遑遑栖栖 황황서서
감히 한가로이 지내지 않았거늘	不敢自暇 불감자가
저 짝지어 밭이나 가는 무리들이	彼耦耕流 피우경류
어찌 성인(공자)의 뜻을 알리요	豈知聖者 기지성자

「문진부 問津賦 」의 끝 부분

출처 『회재집』[4]

4
이 도록에서 출처를 『회재집』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www.itkc.or.kr)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회재집'의 번역문과 원문을 가리킨다. 번역 문구 중에는 도록 편집자가 현대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고친 부분도 있다.

정덕계유사마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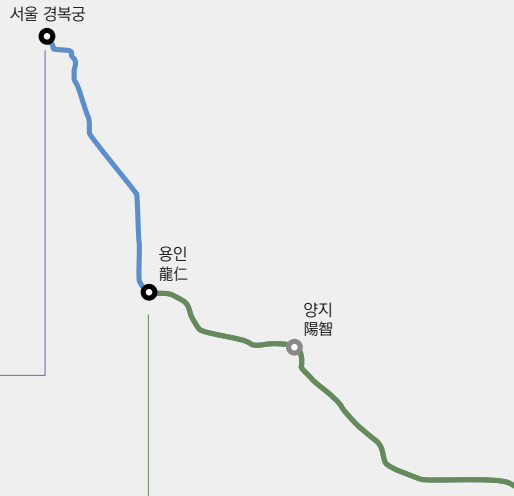
正德癸酉司馬榜目

독락당 소장 / 1513 / 1책 / 금속활자본 / 보물 제524-1호

회재 선생이 스물세 살 때인 1513년 중종 8, 정덕 계유년 에 거행된 생원진사시의 시험 합격자와 시험 담당관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1445년 을해년 에 주조된 금속활자 을해자 乙亥字 로 찍어 내어 합격자와 담당관에게 배포하였는데, 이 책은 합격자인 회재 선생이 받아 보존하며 이용하던 소장본이다.

스물네 살의 이언적,

780리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서도 부귀가 아니라 옛 성현의 가르침과 천도 天道 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 구하겠다는 결심을 「서정시 西征詩 」에 담아내다.



❺ 서울에 도착하여

진퇴 進退 는 마음 편한 바를 따르고	行藏隨遇安 행장수우안
출처 出處 는 내 뜻대로 정하면 그뿐	出處由我決 출처유아결
나귀 타고 서울에 올라왔지만	騎驢客京華 기려객경화
부귀한 자 추종하길 부끄러워하네	恥隨肥馬迹 치수비마적
문을 닫고 들어앉아 책을 읽으니	閉門閱書史 폐문열서사
창으로 불어드는 서늘한 바람	窓戶新涼入 창호신량입
옛사람들은 이미 멀어졌지만	古人雖已遠 고인수이원
가르침은 아직까지 남아 있도다	遺訓猶在目 유훈유재목
책을 펼쳐 그분들을 상상하건대	開卷想其人 개권상기인
내 마음이 실로 먼저 터득했으니	我心實先獲 아심실선획
천도 天道 를 따르면서 본분을 다할 뿐	順天病在己 순천병재기
부귀는 급히 여길 바가 아니다	富貴非所急 부귀비소급

❹ 용인을 지나며

이제 길은 충청도의 경계 벗어나	道過忠淸道 도과충청도
양지현과 용인현을 지나가는데	邑歷仁智邑 읍력인지읍
산 밑에는 오래된 역원이 있고	山根有古院 산근유고원
길옆에는 초가집이 늘어서 있다네	沿路多茅屋 연로다모옥
기근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져서	荒殘生理拙 황잔생리졸
객을 맞아 작은 이익 따지려 드니	邀客利升合 요객이승홉
어찌하면 백만 곡의 곡식을 얻어	安得百萬斛 안득백만곡
집집마다 충분하게 나눠 주려나	大畀家家給 대비가가급

❸ 문경 고모산성을 지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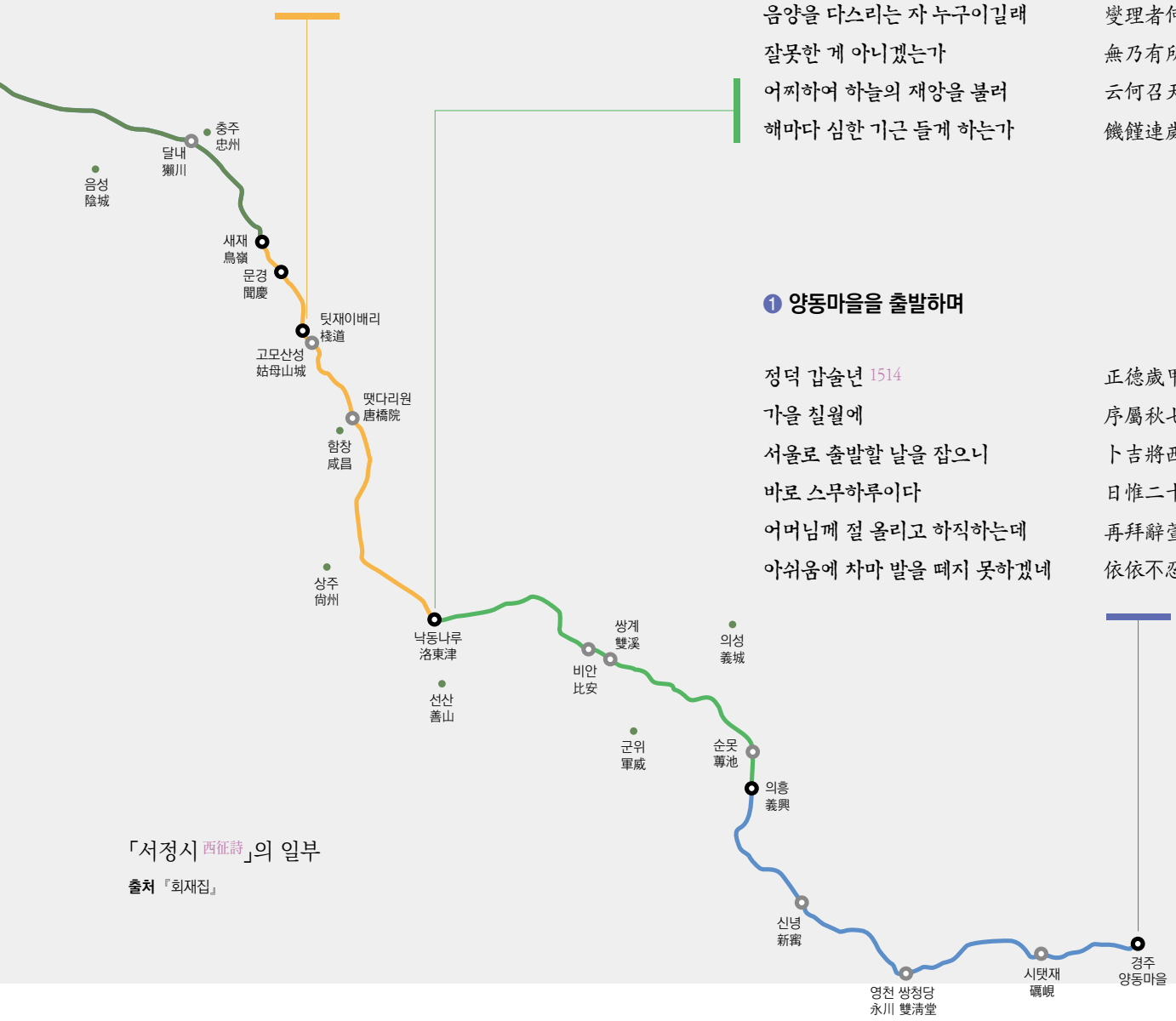
산허리에 옛 보루 남아 있는데	山腰有古壘 산요유고루
어느 시대 것인지는 알 수 없네	不知何代設 부지하대설
옛 삼국 시절을 생각해보니	憶昔三韓秋 억석삼한추
분열하여 전쟁을 일삼느라고	分裂多戰伐 분열다전벌
넘쳐나는 무기를 거두지 않아	干戈爛不收 간과난불수
백성들이 어육 魚肉 이 되었다네	生民盡魚肉 생민진어육
근래에는 오래도록 평화를 누려	邇來大平久 이래대평구
옛 성벽이 덤불 속에 묻혀 있구나	戰壁埋榛棘 전벽매진극

❷ 낙동나루를 지나며

배를 타고 낙동강 건널 때	中流擊楫渡 중류격즙도
한낮의 해가 쨍쨍 내리쬐었고	午日方炎爀 오일방염혁
낙동강 옆 역원에서 밤을 보낸 뒤	暮投洛郵亭 모투낙우정
새벽에 출발하니 날은 이미 훤하다네	曉發天已白 효발천이백
넓은 들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曠野入望中 광야입망중
황폐하여 농작물이 얼마 없으니	赤地少稼穡 적지소가색
농가의 근심 걱정 얼마나 크랴	田家幾勤悴 전가기근췌
가련하게 가을걷이 할 게 없구나	可憐秋無穫 가련추무확
음양을 다스리는 자 누구이길래	燮理者何人 섭리자하인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	無乃有所缺 무내유소결
어찌하여 하늘의 재앙을 불러	云何召天災 운하소천재
해마다 심한 기근 들게 하는가	饑饉連歲酷 기근연세혹

❶ 양동마을을 출발하며

정덕 갑술년 1514	正德歲甲戌 정덕세갑술
가을 칠월에	序屬秋七月 서속추칠월
서울로 출발할 날을 잡으니	卜吉將西征 복길장서정
바로 스무하루이다	日惟二十一 일유이십일
어머님께 절 올리고 하직하는데	再拜辭萱闈 재배사훤위
아쉬움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겠네	依依不忍別 의의불인별



「서정시 西征詩」의 일부

출처 『회재집』

스물일곱 살의 이언적,

새해 설날 올곧은 공직자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다섯 가지의 다짐 「원조오잠 元朝五箴」을 짓다.

듣건대 옛 성현은 덕을 향상시키는 데에 하루도 새로워지지 않는 날이 없고 한 해도 달라지지 않는 해가 없이 하여, 오직 날마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죽어서야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하늘이 부여한 바를 저버리지 않고자 함이었다. **내 나이가 이제 스물일곱인데, 행동은 규범에 맞지 않고 말은 법도에 위배됨이 많다. 학문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도를 이루지 못하였고,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덕이 향상되지 않았으니,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끝내 보통 사람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아! 오늘은 또 설날이다. 해가 또 흘러갔는데 나만 유독 이전과 다름없이 지내며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을 것인가. 경계해야 할 다섯 편의 다짐 箴 을 지어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평생의 근심거리로 삼으려 한다.

출처 『회재집』

1. 외천잠 畏天箴 : 천명에 부합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반성하고 두려워하며 천지간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2. 양심잠 養心箴 : 욕심이 싹트지 않도록 치우침도 기울음도 없는 바른 마음을 길러 온전하게 보전하며 살아가기
3. 경신잠 敬身箴 : 몸과 몸가짐을 공경하고 바르게 가지며 오직 도 道 와 의 義 로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기
4. 개과잠 改過箴 : 과실이 발견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곧바로 인정하며 고쳐나가 같은 과실을 두 번 범하지 않도록 살아가기
5. 독지잠 篤志箴 : 성인을 스승 삼아 학문에 정진하면서 성현이 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더욱 돈독히 하며 살아가기

개과잠 改過箴

사람이 성인이 아닌 다음엔 잘못이 없는 자가 있으랴마는
잘못이 있더라도 고쳐 나가면 잘못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니
잘못을 줄이고 또 줄여 간다면 결국에는 잘못이 없게 할 수 있을 터
성인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이 많은데
성인이 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는 모두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네
이것으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하여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 없게 하였는데 하물며 잘못된 행동을 하랴
만약 잘못된 행동을 혹 했다 하더라도 주저 않고 곧바로 고쳐 나가면
잘못이 없어지고 선 善 을 회복해 그 덕이 하루하루 향상되는 법
그런데 어찌하여 저 일반인들은 잘못을 아는 자가 적은 것인가
알더라도 고치려 하지 않는데 더구나 선 善 한 데로 옮겨 갈쏜가
과실 부끄러워하면 잘못이 되고 잘못을 오래 두면 악 惡 이 되나니
나는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잘못을 바로바로 고치려 하네

人非上聖 인비상성
過而能改 과이능개
寡之又寡 과지우과
無過曰聖 무과왈성
爲聖爲愚 위성위우
是以君子 시이군자
心無過念 심무과념
如或有之 여혹유지
過消善全 과소선전
胡彼衆人 호피중인
知且憚改 지차탄개
恥過作非 치과작비
我其監此 아기감차

誰能無過 수능무과
其過斯寡 기과사과
可至於無 가지어무
多過曰愚 다과왈우
在我而已 재아이이
必誠其意 필성기의
矧有過事 신유과사
卽改不吝 즉개불린
其德日進 기덕일진
知過者鮮 지과자선
矧曰遷善 신왈천선
過久成惡 과구성악
不遠而復 불원이복

출처 『회재집』

원조오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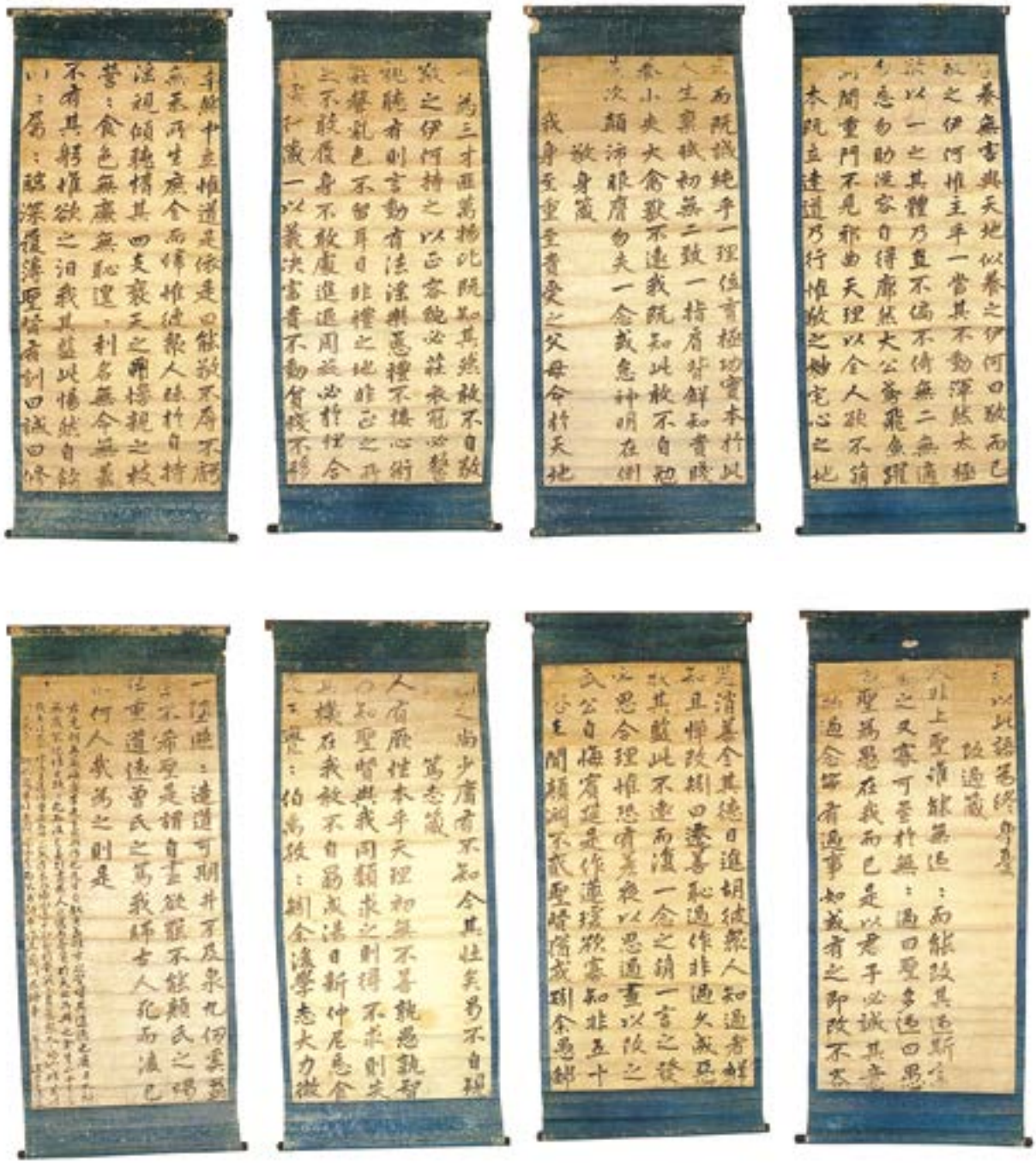
元朝五箴

독락당 소장 / 1566 / 10장 / 필사본 / 보물 제526-2호

회재 선생이 스물일곱 살 때인 1517년 중종 12 새해 아침 元朝 에 자신을 반성하고 덕을 이루기 위해 경계해야 할 다섯 가지의 다짐 五箴 을 지은 글이다. 1566년 아들 이전인이 퇴계 이황 1501~1570 에게 부탁하여 친필을 받아와 독락당에서 보존해왔다.

畏天箴

大生我人付畀者大明命赫然罔有內外
幽修吉敢不祗畏不言而信不動而敬
微不察無隱不者從事於斯潛心對越
動一靜順帝之永言配命俯仰無作
間便是自絕罔而幸免生也可愧



서른 살의 이언적,

공자님은 서른 살에 이립 而立 의 경지에 올랐음에도 자신은 모든 면에서 확고하지 못한 모습을 반성하며 「입잠 立箴 」을 지어 경계해야 할 다짐을 다시 세우다.

공손히 듣건대 공자께서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이르러서는 능히 서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네
선다고 하는 것은 무얼 말하나 마음이 정해지고 도를 터득해
내면은 충실하고 외면은 방정하며
탁연히 치우치지 않고 넓은 곳에 거처하여 대도 大道 행하며
부귀해도 마음에 방탕함 없고 빈천해도 지조를 바꾸지 않아
천하 만물이 나를 굴복시키지 않을 것이네
이러한 경지를 섰다고 말하니 성인이 되기 위한 터전으로서
하늘의 뜻을 이어 법을 세움이 실제로 여기에서 근본하도다
안타깝게 이 몸은 후학으로서 성인을 진정으로 흠모하였지만
뒤늦게야 학문에 뜻을 두었고 도 道 를 들은 것 또한 늦었네
공부가 엉성하고 힘이 부족해 배움의 효과 아직 못 거뒀는데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 멀지만 그래도 뜻을 버릴 수가 없기에
성인에게 언제나 견주어 보며 돌이켜 나의 허물 반성하노라

… (중략) …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도 같아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가만히 내 나이를 헤아려 보니 내일이면 어느새 삼십이로구나
그러니 이때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범인을 벗어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산사에 종 울리면 또 한 해가 시작되니
천도의 변화 따라 계절도 바뀌리라
나 이제 하늘의 덕 德 을 본받아 그 덕을 새롭게 하려 하노라
묵은 습성 말끔히 씻어 버리고 한결같이 성인의 법도를 따르며
경박함을 바로잡고 나태함 버려 남들보다 백배는 더 노력하리니

성심 다해 오래도록 힘을 기울여 성인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기약하노라
지금부터 세월 흘러 사십 오십 되는 날도
또한 그리 멀지 않아 눈 깜짝할 순간일 터
그때도 알려짐이 없다고 하면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 없으리
이 때문에 잠 못 들고 근심하다가 경계할 다짐을 지어 스스로를 바로잡노라
마음에 맹세하고 뜻을 세워서 목숨 다할 날까지 힘쓰려 하네
상제께서 굽어보고 계실 것이니 나의 마음 어찌 감히 변하겠는가

恭聞仲尼 공문중니　　十五志學 십오지학
至于三十 지우삼십　　乃克有立 내극유립
曰立伊何 왈립이하　　心定道得 심정도득
充實於內 충실어내　　直方於外 직방어외
卓然不倚 탁연불의　　居廣行大 거광행대
富貴不淫 부귀불음　　貧賤不易 빈천불역
天下萬物 천하만물　　莫我撓屈 막아요굴
是謂能立 시위능립　　進聖之基 진성지기
繼天建極 계천건극　　實本於斯 실본어사
閔余後學 민여후학　　惟聖是慕 유성시모
志學苦晩 지학고만　　聞道亦暮 문도역모
功疏力淺 공소역천　　學未收效 학미수효
任重道遠 임중도원　　志猶不舍 지유불사
援聖比度 원성비탁　　反躬省過 반궁성과

… (중략) …

歲月如流 세월여류　　一往不復 일왕불복
究我年數 구아년수　　奄迫三旬 엄박삼순
及此未立 급차미립　　寧免衆人 영면중인
是用自省 시용자성　　竟夕不眠 경석불면
鍾鳴山寺 종명산사　　又是新年 우시신년

天道旣變 천도기변　　時物亦遷 시물역천
我其法天 아기법천　　思新厥德 사신궐덕
滌去舊習 척거구습　　一遵聖法 일준성법
矯輕警惰 교경경타　　人一己百 인일기백
眞積力久 진적력구　　期入聖域 기입성역
自今以往 자금이왕　　四十五十 사십오십
又無幾何 우무기하　　轉眄忽及 전면홀급
到此無聞 도차무문　　已矣可追 이의가추
是用耿耿 시용경경　　箴以自規 잠이자규
標志誓心 표지서심　　爲終身事 위종신사
上帝實臨 상제실림　　我心敢貳 아심감이

출처 『회재집』

서른네 살의 이언적,

경상도 인동현의 현감으로 임명되어 2년 동안 청렴하고 정직하게 다스리다.

한번은 암행어사가 올 것이라는 보고가 관할 역 驛 으로부터 올라오자, 선생은 **"암행어사가 오는 것은 불시에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인데 너는 어째서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냐."** 라고 꾸짖어 말했다. 암행어사가 이르러 살펴보고는 인동현에는 적발할 불법 행위가 없자 탄복하고 떠나갔다.

출처 『회재집』

마흔한 살의 이언적,

사간원의 사간 司諫 이 되어,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나 과오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다 좌천과 파직을 당하다.

사헌부의 대사헌 大司憲 심언광과 사간원의 정언 正言 채무택 등이 중심이 되어, 유배당한 후 권세를 잡고자 절치부심하던 김안로 金安老 의 재 등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대세를 이루었다. 이때 사간원의 사간 司諫 으로 재직하던 이언적 선생만 김안로가 재 등용되면 국가에 많은 피해를 줄 간신 奸臣 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홀로 적극 반대하여, 채무택을 정언에서 경질시키기도 했지만 김안로 일당의 모함을 받아 성균관의 사예 司藝 로 좌천되었다. 심언광이 사예로 좌천된 선생을 찾아와 물었다. "사예 이언적 는 김안로가 소인 小人 임을 어떻게 알았소?" 선생이 대답하였다. **"김안로가 경주부윤으로 있을 때 그의 마음 씀씀이와 일 처리를 보았더니 참으로 소인이었소. 이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반드시 나랏일을 그르칠 것이오."** 누군가가 "김안로가 비록 재 등용되더라도 어찌 요직을 맡기겠소. 단지 세자를 위하려는 것일 뿐이오." 라고 말하자, 선생은 "그렇지 않소. 김안로가 만약 재 등용되면 반드시 권력을 잡고 제멋대로 날뛸 것이니,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소. 또 세자는 이미 나라 안의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촉망받고 있는 분인데, 어찌 김안로를 재 등용해야만 그 지위가 안정되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심언광이 노하여 돌아갔는데, 그 일로 인해 마침내 탄핵받고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갔다. 나중에 경주 사람 중에 김안로에게 뇌물을 바쳐 관직을 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안로가 그에게 **"이언적이 모르도록 조심히 해라."** 고 말하였다.

출처 『회재집』

02 1532~1537

독락당과 옥산마을, 유학자의 이상 공간을 만들다

김안로 일당의 모함으로 파직당해 고향에 돌아온 회재 이언적은 그들이 나라와 임금과 백성이 아니라 자기 당파의 이익만을 쫓는 간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 실각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중종 임금이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함께 만들자며 자신을 다시 불러줄 때까지 늙으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심신을 연마하고 성현의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옥산마을을 택했다.

1 정혜사 이 옥산마을에는 열네 살에 들어가 기숙하며 학문에 정진하던 정혜사가 있었고, 그 산수가 아름다워 부친 때부터 운영하던 모옥 정자가 있었다.

2 독락당과 계정 늙으신 어머니를 곁에서 모시며 오랜 공직생활로 잠시 멈추었던 성현의 학문에 다시 정진하고자 별장 동쪽 옥산천의 물가에 깨달음의 기쁨을 '홀로 즐기며' 심신을 연마하고자 독락당 獨樂堂 과 계정 溪亭 을 지었다. 옥산 자계천의 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김안로 일당의 전횡도 언젠가 끝날 것임을 굳게 믿으며 학문에 정진 또 정진했다.

옥산 자계천 아름다운 층층반석의 맑은 물가에 자신을 반성하며 학문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다섯 대 五臺 의 이름을 손수 지어 불렀다.

3 관어대 학문에 정진하다 때론 맑고 깊은 물속에 물고기 노니는 관어대 觀魚臺 [5]의 계정에 앉아 낚싯대 드리우고 사색에 잠겼고

4 세심대 말 타고 외출 갔다 돌아올 때면 마을 어귀 넓은 반석 세심대 洗心臺 [6]에 내려 학문 정진을 향한 마음 다시 씻어 내리며 다리 건너 돌아왔다.

5 영귀대 마음이 흉흉하면 옥산천 너머 영귀대 詠歸臺 [7]로 건너가 잔잔한 연못 바라보며 시 詩 읊어 마음 정리했고

6 탁영대 탁영대 濯纓臺 [8]로 발길 돌려 맑은 물에 갓끈 씻으며 김안로 일당의 전횡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7 징심대 징심대 澄心臺 [9]에 올라 앉아 나라와 임금과 백성을 향한 맑은 마음 회복하며 돌아왔다.

독락당을 나와 고개 들면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사산 四山 에도 임금과 나라를 향한 회재 이언적의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8 도덕산 임금 계시는 서북쪽의 우뚝한 산에는 유학의 도 道 가 이루어지고 덕 德 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도덕산 道德山 이란 이름을 붙여주었고

9 자옥산 서쪽에 솟아난 산에는 우리나라가 천상의 세계처럼 평화롭고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자옥산 紫玉山 이라 불렀다.

10 무학산 남쪽 들판 너머 좌우로 이어진 산에는 춤추는 학처럼 언젠가 훨훨 날아 임금의 곁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며 무학산 舞鶴山 이란 이름을 붙였고

11 화개산 독락당 옥산천 너머 동북쪽의 산에는 언젠가 임금의 곁으로 돌아가 양산 華蓋 처럼 간신으로부터 임금을 보호하며 새나라 경영에 온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담아 화개산 華蓋山 으로 불렀다.

5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장자와 혜자가 물고기 노니는 것으로 보고 대화를 나눈 고사.

6
주역 「계상전(상)」에 나오는 뜻을 취해 마음을 씻고 허물을 바로 잡는 뜻에서 붙임.

7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기수에서 목욕한 후에 무에서 바람 쐬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온다는 뜻에서 영귀대다.

8
「초사」 굴평(屈平) 「어부사 : 滄浪之水淸兮(창랑지수청혜)면 可以濯吾足(가이탁오족)이다 《물이 탁하면 발을 씻겠다》와 『맹자』 「이루상」에 나오는 말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초탈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유하는 의미에서.

9
징심대는 마음을 가라앉혀 맑게 한다는 뜻에서.

10
▲
무학산

마흔다섯 살의 이언적 ①,

「임거십오영 林居十五詠」을 지어 독락당 옥산마을의 전원생활 열다섯 풍경을 읊다.

초봄 早春

깊은 숲에 봄이 와서 경치가 새로우니	春入雲林景物新 춘입운림경물신
시냇가의 복사 살구 생기가 충만하네	澗邊桃杏摠精神 간변도행총정신
지금부터 짚신 신고 지팡이 짚고 나가	芒鞋竹杖從今始 망혜죽장종금시
시내와 산을 찾아 참된 흥취 느끼리라	臨水登山興更眞 임수등산흥갱진

늦봄 暮春

봄이 깊어 산과 들에 온갖 꽃들 새로운데	春深山野百花新 춘심산야백화신
한가하게 홀로 걷다 시냇가에 서노라	春深山野百花新 춘심산야백화신
묻노니 봄의 신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	爲問東君何所事 위문동군하소사
붉은 꽃 하얀 꽃이 저절로 피었거늘	紅紅白白自天眞 홍홍백백자천진

초여름 初夏

시내와 산이 다시 사월을 맞이하니	又是溪山四月天 우시계산사월천
한 해의 봄이 이미 아득하게 사라졌네	一年春事已茫然 일연춘사이망연
교외에 홀로 서서 공연히 슬퍼하며	郊頭獨立空惆悵 교두독립공추창
고개 돌려 구름 덮인 산봉우리 바라보네	回首雲峯縹緲邊 회수운봉표묘변

가을 소리 秋聲

오늘 밤엔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데	月色今宵分外明 월색금소분외명
난간에 서서 이미 가을 소리 듣는구나	憑欄靜聽已秋聲 빙란정청이추성
한 곡조의 가을소리 아는 사람 없건마는	商音一曲無人會 상음일곡무인회
귀밑에 네댓 가닥 흰머리를 보태 주네	鬢上霜毛四五莖 빈상상모사오경

초겨울 冬初

붉은 잎들 어지러이 뜰에 가득 뒹구는데　紅葉紛紛已滿庭 홍엽분분이만정
뜰 앞의 시든 국화 아직 향기 머금었네　階前殘菊尙含馨 계전잔국상함형
산속의 모든 것들 시들고 떨어져도　山中百物渾衰謝 산중백물혼쇠사
찬 솔만은 여태까지 푸른 것을 사랑하네　獨愛寒松歲暮靑 독애한송세모청

가뭄 걱정 閔旱

농가에서 가뭄을 매년 근심하거니와　農圃年年苦旱天 농포연연고한천
근래에는 숲 속에 샘물마저 말랐어라　邇來林下絶鳴泉 이래임하절명천
농부가 은거하는 사람 마음 몰라주고　野人不識幽人意 야인불식유인의
푸른 산을 다 태워서 화전을 만드누나　燒盡靑山作火田 소진청산작화전

비를 기뻐함 喜雨

밤사이 격자창에 빗소리가 요란하니　松櫺一夜雨聲紛 송령일야우성분
나그네 놀라 깨어 기뻐하며 듣는구나　客夢初驚却喜聞 객몽초경각희문
이로부터 우리나라 큰 가뭄이 없으리니　從此靑丘無大旱 종차청구무대한
산사람 바위 구름 아래 누워 지내리라　幽人端合臥巖雲 유인단합와암운

감물 感物

아름다운 산수 속에 집 지은 지 오래되어　卜築雲泉歲月深 복축운천세월심
손수 심은 솔과 대가 모두 숲을 이뤘어라　手栽松竹摠成林 수재송죽총성림
안개 노을 조석으로 자태가 새로운데　煙霞朝暮多新態 연하조모다신태
푸른 산은 세월 가도 변함없는 모습이네　唯有靑山無古今 유유청산무고금

무위 無爲

만물은 변천하여 일정한 자태 없고　萬物變遷無定態 만물변천무정태
한 몸은 한적하게 절로 때를 따르노라　一身閑適自隨時 일신한적자수시
연래로 경영하는 힘을 점차 줄인지라　年來漸省經營力 연래점성경영력
산을 오래 바라보며 시조차도 짓지 않네　長對青山不賦詩 장대청산불부시

관물 觀物

요순의 태평시대 실로 천고에 우뚝하나　唐虞事業巍千古 당우사업외천고
한 점 구름 창공을 흘러가는 것과 같네　一點浮雲過太虛 일점부운과태허
맑은 시내 굽어보는 조촐한 정자에서　蕭灑小軒臨碧澗 소쇄소헌임벽간
종일 마음 맑게 하고 물고기를 구경하네　澄心竟日玩游魚 징심경일완유어

계정 溪亭

옆 숲에서 아름다운 산새 소리 들려오니　喜聞幽鳥傍林啼 희문유조방림제
새로 지은 초가 정자 작은 내를 굽어보네　新構茅簷壓小溪 신구모첨압소계
홀로 술을 마시면서 밝은 달을 맞이하고　獨酌只邀明月伴 독작지요명월반
한 칸 집에 흰 구름과 함께 깃들이도다　一間聊共白雲棲 일간료공백운서

독락 獨樂

무리 떠나 홀로 사니 누가 함께 시를 읊나　離群誰與共吟壇 이군수여공음단
산새와 물고기가 나의 낯을 잘 안다오　巖鳥溪魚慣我顔 암조계어관아안
개중에서 특별히 더 아름다운 정경은　欲識箇中奇絶處 욕식개중기절처
두견새 울음 속에 달이 산을 엿볼 때지　子規聲裏月窺山 자규성리월규산

관심 觀心

빈산에서 한밤중에 정좌하고 있노라니 空山中夜整冠襟 공산중야정관금
한 점의 푸른 등불 한 마음을 비추누나 一點靑燈一片心 일점청등일편심
본체를 밝은 데서 이미 징험하였기에 本體已從明處驗 본체이종명처험
참다운 근원 고요한 가운데서 다시 찾네 眞源更向靜中尋 진원갱향정중심

존양 存養

산속에 비가 내려 절로 꿈이 깨었는데 山雨蕭蕭夢自醒 산우소소몽자성
홀연히 창밖에서 들려오는 들꿩 소리 忽聞窓外野鷄聲 홀문창외야계성
인간세상 온갖 걱정 모조리 사라지고 人間萬慮都消盡 인간만려도소진
오직 한 점 마음만이 밝은 빛을 드러낸다 只有靈源一點明 지유영원일점명

가을 해바라기 秋葵

가을까지 변함없이 고운 꽃을 피우는데 開到淸秋不改英 개도청추불개
길옆에서 봄의 영화 다투려고 하겠는가 肯隨蹊逕鬪春榮 긍수혜경투춘영
적막한 산속 집에 감상하는 사람 없이 山庭寂寞無人賞 산정적막무인상
그저 붉은 마음 안고 해를 향해 기울었네 只把丹心向日傾 지파단심향일경

출처 『회재집』

마흔다섯 살의 이언적 ②,

중종 임금에게 충언을 고하고 물러나와 문득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 내용을 담아 「기몽 記夢」을 짓다.

「기몽 記夢」

선생이 **"옛 사람이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였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매사를 삼가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한없이 큰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아뢰자, 임금께서 기뻐하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마침내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는데, 문득 깨어나 보니 몸은 산방에 누워 있고 서늘한 달빛이 창문에 가득하였다. 일어나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마침내 절구의 시 두 수를 지었다.

꿈속에 입궐하여 편전에 입시하고	夢入君門侍燕閑 몽입군문시연한
성상 앞에 나아가서 성심으로 아뢰는데	披襟啓沃近天顔 피금계옥근천안
깨어 보니 여전히 빈산에 누워 있고	覺來依舊空山臥 각래의구공산와
창밖에는 쓸쓸하게 비추는 찬 달빛뿐이네	窓外蕭蕭月色寒 창외소소월색한
자연 속에 자유롭게 노니는 게 즐겁지만	優游山海樂雖深 우유산해낙수심
노년에도 나라 은혜 갚으려는 뜻 지녔네	皓首猶存報國心 호수유존보국심
온화하신 성상에게 지척에서 충언해도	咫尺溫顔獻忠款 지척온안헌충관
감통함이 도리어 상림 商林 에 부끄럽네[10]	感通還自愧商霖 감통환자괴상림

출처 『회재집』

10
상림(商霖)은 중국의 은나라 고종이 꿈에 부열(傅說)을 보고는 그 모습을 그려서 수소문하여 찾아낸 뒤 상신(相臣)으로 삼고, "만약 큰 내를 건너게 되면 너를 배와 노로 삼고, 큰 가뭄이 들면 너를 장맛비로 삼으리라.〔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했던 데서 나온 것으로, 훌륭한 재상을 뜻한다. 「기몽」의 이 구절은 즉 자신과 국왕 중종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왕을 뵙고 충언을 올리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은 부열만큼 훌륭한 신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다.

마흔여섯 살의 이언적,

부족함이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지비음 知非吟」을 짓다.

「지비음 知非吟」

내 나이 오십 살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今我行年未五十 금아행년미오십
사십오 년간의 잘못 이미 잘 알겠도다	已知四十五年非 이지사십오년비
생각이 나태하여 마음 보존 못하는데	存心却累閑思慮 존심각루한사려
현미 顯微 를 꿰뚫어서 도를 체득하겠는가	體道安能貫顯微 체도안능관현미
인 仁 과 의 義 를 행하는 데 힘을 다 못 쏟았고	爲義爲仁不用極 위의위인불용극
남에게도 스스로도 잘못한 게 많았어라	處人處己又多違 처인처기우다위
지금부터 발분 發憤 하여 늙어 가는 것도 잊고	從今發憤忘身老 종금발분망신로
선철만을 본받아서 허물을 줄이리라	寡過唯思先哲希 과과유사선철희

출처 『회재집』

03 1537~1546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는 공직 생활 그리고 또 파직

마흔일곱 살의 이언적,

권신 김안로 일당의 몰락을 기뻐하고 몸은 늙었지만 온몸 바쳐 충성하고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가리라 다짐하며 노래하다.

「정유동상락증향우 丁酉冬上洛贈鄕友」: 정유년 겨울 서울에 올라가며 고향 친구들에게 보내다

음陰 다하고 양陽 돌아와 만물에 봄이 오니	陰盡陽廻萬物春 음진양회만물춘
애써 쇠한 몸 이끌고 세속으로 들어가네	强將衰朽入紅塵 강장쇠후입홍진
임금 도울 재주 없다고는 말을 마라	莫言輔主無才調 막언보주무재조
한 조각 붉은 충심 늙을수록 새로우니	一片丹心老更新 일편단심노경신

가는 걸음 더디건만 다시 조금 지체하니	行路遲遲更小留 행로지지경소류
아련하게 연무 피는 고향의 숲과 언덕	依依煙景舊林丘 의의연경구림구
원학猿鶴은 놀라거나 원망하지 말거라	寄言猿鶴休驚怨 기언원학휴경원
백발이 되기 전에 사직하고 갈 것이니	投紱還山未白頭 투불환산미백두

출처 『회재집』

마흔여덟 살의 이언적,

중종 임금의 인재 선택 문제를 진심으로 직언하다.

시강관 侍講官 이언적 李彦迪 이 아뢰기를, "…(중략)…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공손하고 검소한 덕행은 지극하다 할 수 있으나, 국가에 변고가 반복되어 원기가 위축되고 인심과 풍속이 크게 퇴폐되어 진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하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슬기가 밝지 못하고 덕을 굳게 지키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대저 덕을 굳게 지키어 시종 한결같이 하고 인물을 밝게 관찰하여 간신과 어진 신하를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은 임금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살펴보면 궁궐과 인연을 맺고 등용되기를 바라는 자는 부정 不正 한 사람이요, 조정에 우뚝 서서 맹종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는 자는 군자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다면 사정을 분별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임금이 "임금의 일 가운데 사람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는가. 내가 즉위한 이래 조정에 자주 큰 변고가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더욱더 성찰하고 유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중종실록』1538년(중종 33) 2월 1일

마흔아홉 살의 이언적,

전주 부윤이 되어 백성을 진심으로 다스리고, 임금에게는 충언 忠言 을 올리다.

전주부윤 이언적은 정치를 청렴하고 검소하게 하였고, 맡은 바 임무를 조심스럽게 하여 세금을 적게 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였으며, 백성이 (괴롭히는) 아전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니, 고을 전체가 편안하였습니다. 『중종실록』1539년(중종 34) 10월 26일

대저 국가의 형세는 성하지 못하면 쇠하고 쇠하면 멸망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군주는 성한 때에 쇠할 것을 염려하고 쇠한 때에 진작할 것을 생각합니다. 쇠한 때에 진작하지 못한다면 숨이 곧 넘어갈 듯한 병자와 같아 반드시 날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흥하고 쇠하며 진작되고 무너지는 근본은 군주의 마음이 순수하고 한결같아 쉼이 없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만약 안으로는 정한 뜻이 없고 밖으로는 정해진 규례가 없어, **아침에는 부지런히 하다가 저녁에는 게을러지고, 금방 했다가도 금방 내팽개쳐 버리며, 바른 생각이 싹트자마자 사욕이 빼앗아 가고, 좋은 정사를 시행하자마자 바르지 못한 주장이 막아 버리며, 선량한 신하가 등용되자마자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가 이간질한다면, 장차 문란하고 맥이 빠져서 끝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요, 끝내는 혈맥이 병들고 기운이 소진된 틈을 풍사 風邪 가 타고 들어가 목숨이 위태로운 형국에 이를 것입니다.**…(중략)…그러면 무엇을 하나의 강령이라고 일컫는 것인가 하면, 임금의 심술 心術 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정치의 잘됨과 못됨, 백성들의 편안함과 어려움의 징조는 모두 임금의 한 마음에 근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온갖 일이 어그러지고 인심 人心 도 어긋나서 사나운 기운이 응하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중종실록』1539년 (중종 34) 10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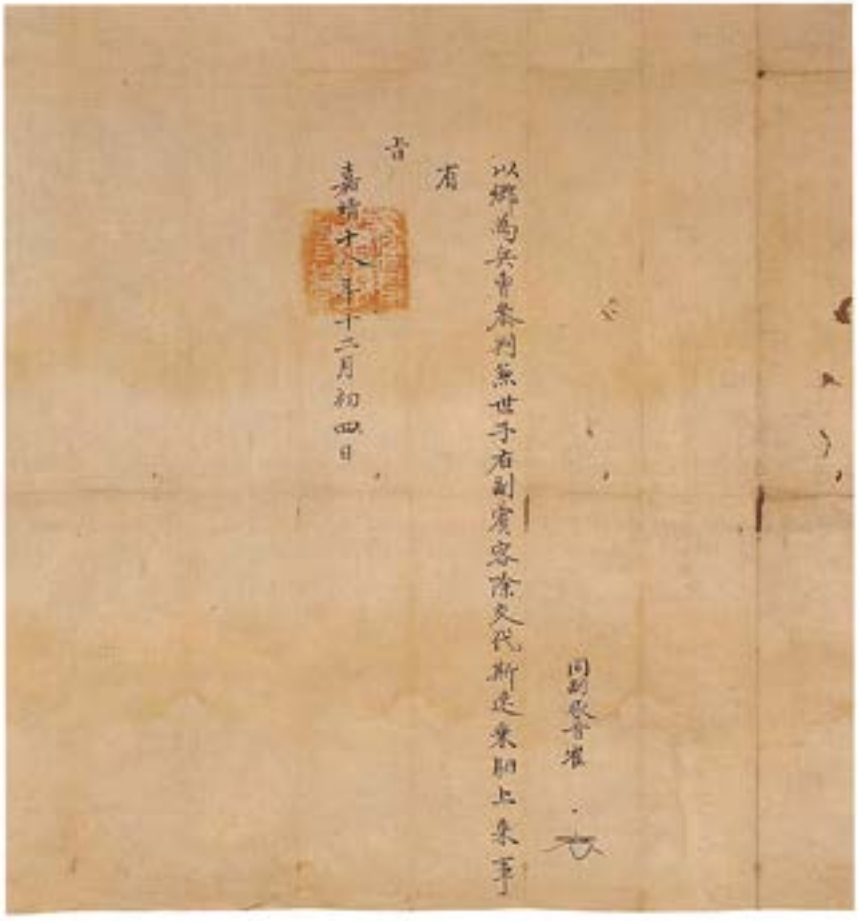
어제 저녁 이언적의 상소를 한밤중까지 보았다. 그 언사가 매우 절실하고 곧으니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송나라의 충신) 진덕산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의 강령과 열 개의 조목들은 다 사리에 맞아 새겨들어야 할 말 格言 이므로 한번 보아 넘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옆에 두고 한가할 때 늘 펼쳐 보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세자가 보면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니, 책으로 두 벌을 만들어 (알아보기 쉬운) 해서 楷書 의 글씨로 베껴 들여다가 내가 한 권을 보고 세자가 한 권을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중종실록』1539년 (중종 34) 10월 21일

중종유지 [세자우부빈객제수]

中宗有旨 [世子右副賓客除授]

독락당 소장 / 1539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2호

회재 선생이 마흔아홉 살 때인 1539년 중종 34 에 중종 임금이 종2품의 병조참판 겸 세자우부빈객에 임명하고 속히 상경하라는 명령서 有旨 다. 세자우부빈객은 세자에게 유교의 경전을 강의하고 도의 道義 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맡은 관리다.



쉰두 살의 이언적,

관리 임명의 수장 이조판서로서 왕자라도 청탁의 기미가 보이면 피하고, 지방관 수령의 임명에 온 힘을 기울이다.

선생과 매우 가까운 곳에 어떤 왕자가 살았는데, 이조판서에 임명되는 날 먼저 찾아와서 선생을 뵈었다. 그러고 나서 또 찾아오자 선생은 병이 났다며 거절하고 그날로 거처를 옮기니 왕자가 크게 앙심을 품었다.

출처 『회재집』

이조 판서 이언적 李彦迪 등이 아뢰기를, "옛 조종조에서는 백성의 안락과 슬픔이 수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수령의 인선을 중시하고 재임 기간을 길게 하면서도 오히려 수령의 임명을 맡고 있는 이조와 병조의 눈과 귀가 모자라서 인물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함을 두루 알지 못할까 염려한 까닭에, 매년 봄 정월이면 (고관들이 수령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렇게 추천된 대상자를 상대로 심사한 후 결정하는) 천거 薦擧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옛 법을 지키지 않아 인물 선택에 있어서 심사하지 않고 자주 임명하는 탓으로 고을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백성은 나날이 생기를 잃어가니 조종조의 좋은 법도와 아름다운 뜻이 거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난봄에 대관 臺官 의 논계로 인하여 다시 거행하였으나 천거하는 자가, 백성을 위해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국가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간혹 용렬하고 비루한 자들을 섞어서 천거하였습니다. 금년은 벌써 2월이 이미 지났는데 한 사람의 천거도 아직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밝히시어 이번 3월 안으로 천거하도록 하되, 만약 사정을 좇아 잘못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심문하여 잘못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많은 군현들을 천거 받은 사람만으로 임용한다면 아마도 사람의 수가 부족할 것이고, 천거를 받은 자 또한 반드시 유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조와 병조는 인물을 심사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수령 대상자를 3배수로 추천할 적에, 일부는 천거로 구하고 일부는 듣고 본 인물 가운데에서 가리되, 조정의 일반적인 논의를 참작한다면 아마도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인재를 등용하는 길도 넓어질 것입니다." 『중종실록』1542년 (중종 34) 3월 3일

경상도관찰사유서

慶尙道觀察使諭書

독락당 소장 / 1543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1호

회재 선생이 쉰세 살 때인 1543년 중종 38 에 중종 임금이 경상도관찰사에 임명하면서 관찰사로서 취해야 할 태도와 임무 등 당부의 말을 담은 유서 諭書 다. 유서는 임금이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다.

쉰다섯 살의 이언적,

의정부 좌찬성으로 권신 윤원형 일당이 윤임 일파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죄를 주려하자 절차상 하자를 들어 반대하다.

처음에 윤원형이 윤임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고, 임백령과 이기가 그의 심복이 되어 사림 士林 을 무너뜨려 그 간교한 계책을 성공시키려고 하였다. 윤원형이 임금의 비밀스런 명령서 密旨 를 칭탁하여 (사헌부 · 사간원의) 대간 臺諫 들을 유인하여 윤임을 치게 하려 하였으나 대간들이 따르지 않았다.…(중략)…이때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가 (윤임 처벌을 반대하는 것에) 크게 진노하여 감히 조금도 거스르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은 차분히 말하기를 "신하의 의리는 자신이 섬기는 군주에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행대왕 인종 에게 마음을 다했던 자들에게 어찌 큰 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일 처리는 밝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림 士林 이 화를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 목을 움츠렸으나, 선생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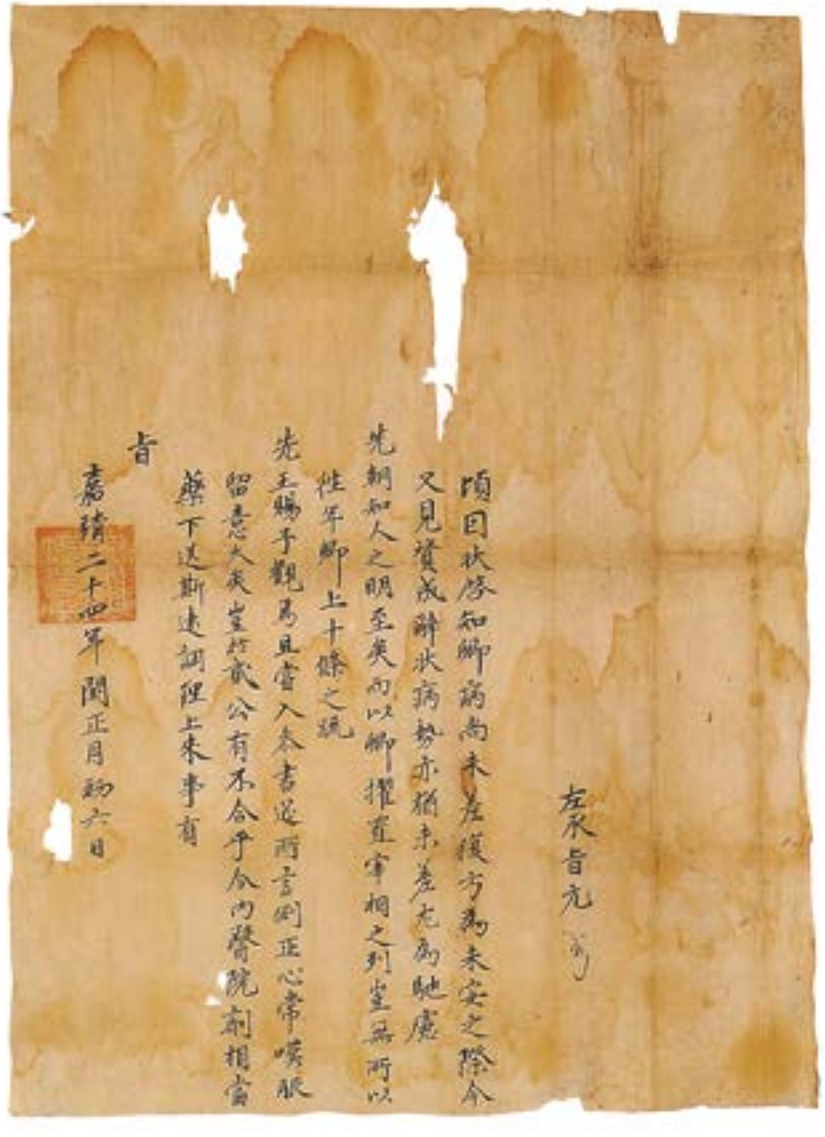
출처 『회재집』

인종유지 [찬성제수]

仁宗有旨 [贊成除授]

독락당 소장 / 1545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5호

회재 선생이 쉰다섯 살 때인 1545년 인종 1 에 인종 임금이 종1품의 찬성 贊成 을 맡으라고 설득하는 내용을 승정원의 승지를 통해 전한 명령서 有旨 다. 찬성 贊成 은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차관급으로, 의정부 찬성사를 줄여서 부른 이름이다.



쉰여섯 살의 이언적,

어린 명종 임금에게 어진 신하를 가까이하고 간신을 멀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관직에서 물러나다.

임금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조정을 바로잡고, 조정을 바르게 하여 백관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르게 하여 만백성을 바로잡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학문을 강구하고 이치를 밝히며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 하고 간신을 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깊이 음미하고 의리의 근원을 연구하면 마음속에 천리가 날로 밝아지고 개인의 욕심이 날로 사라지게 되며,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간신을 멀리하면 감화를 입어 바로잡는 이로움이 있고 잠깐 하다가 그만둬 버릴 염려가 없게 됩니다.

출처 『회재집』

윤원형 일당,

공직자의 모범 회재 선생을 두려워하여 모함으로 훈작을 삭탈시키다.

처음에 선생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도사 都事 이천계가 지평으로 부름을 받고 대궐로 올라가면서 의견 묻기를 "지금 정승을 정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의견이 모두 (윤원형의 일당인) 이기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하자, 선생은 "그는 사람이 음험하니 정승 자리에 앉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이기가 과연 정승으로 발탁되었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이 탄핵하여 파직되었다.…(중략)…윤원형은 선생이 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누차 선생과 교분을 맺고자 하였으나 선생이 관계를 끊고 왕래하지 않자 이로 말미암아 깊은 원한을 품었다. 이때 조정의 논의가 흉흉하더니 모함이 마침내 선생에게 미쳤다. 9월에 이기가 아뢰기를 "이언적은 사악한 의론에 현혹되어 세자에게 아부하고 종종 임금을 배반하였으며, 10개 조의 보고서 書啓 를 올려 임금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또 유인숙과 결탁하여 역적 윤임 을 구호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신이 예전에 뇌물 받은 관리의 사위라는 이유로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언적이 대사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규제를 풀어 주었으니 신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은 국가를 위해 사사로운 은혜를 따지지 않고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대사헌 윤원형과 지평 진복창이 (선생에게 벌 줄 것을) 이어서 아뢰니, 이에 훈작을 삭탈하였다.

출처 『회재집』

04 1547~1553
강계 유배, 명저를 남기다

윤원형 일당,

회재 선생을 양재역 벽서사건에 억지로 연루시켜 강계로 유배 보내니, 선생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어떤 무뢰배가 익명으로 양재역의 벽에다 나라를 비방하는 말을 써 놓았는데, 부제학 정언각이 보고 벽지를 뜯어 가져와서 아뢰었다. 이로 인해서 을사사화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크게 죄를 가했는데, 선생도 그 속에 들어 강계부에 안치되었다. 유배의 명이 내려졌다는 말을 듣고 온 집안이 통곡하였지만 선생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마시고 먹고 말하고 웃기를 평소와 같이 하였다. 집안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대부인 어머니 을 잘 봉양하거라. 하늘이 위에서 굽어보시니 내가 머지않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출처 『회재집』

서울-강계 1,360리 유배길

「지치명 知恥銘」: 유배 받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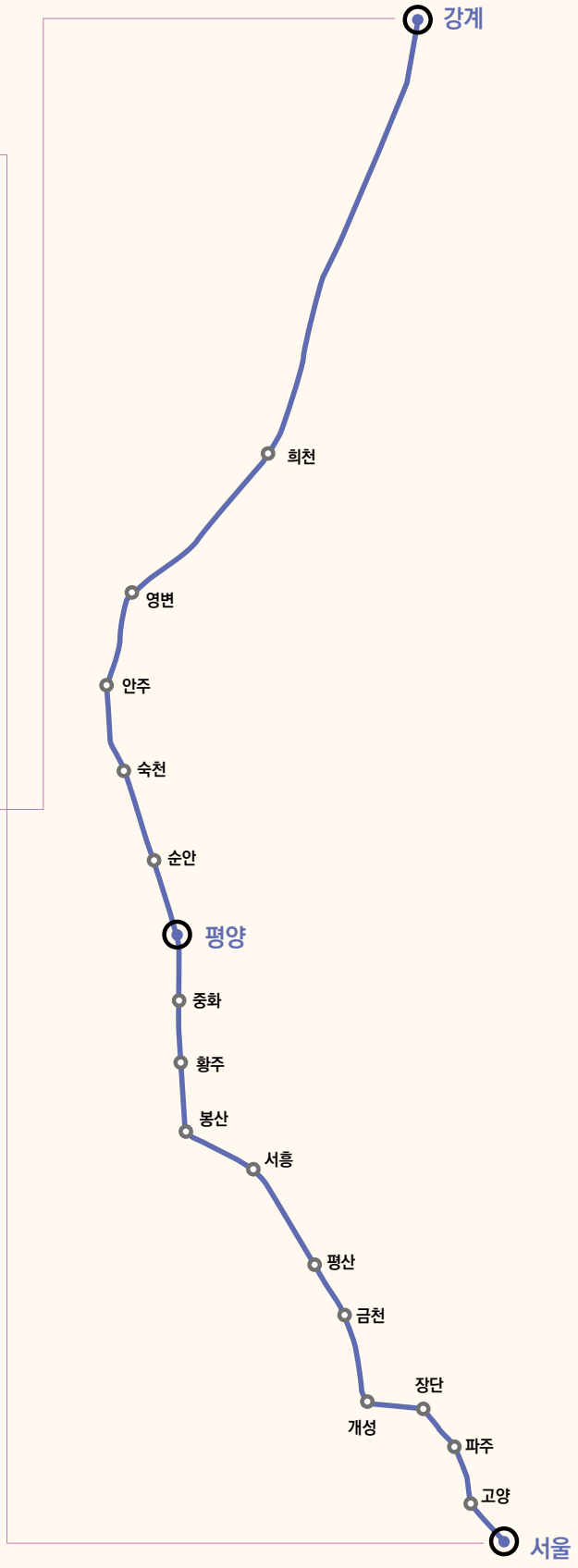
엉뚱하게 예상치도 못하고	如或無妄 여혹무망
재앙이 자신의 몸에 닥쳐와	身遭患厄 신조환액
멀고 먼 변방 땅에 유배되거나	裔夷之竄 예이지찬
저자에서 처형된다면	朝市之戮 조시지륙
부끄러워하지 않고 달게 받아서	甘受無恧 감수무뉵
호기가 넘쳐나게 해야 하리라	浩氣充塞 호기충색
세상이 비록 나를 용납 안 해도	世不我容 세불아용
나를 알아주는 건 하늘이리니	知我者天 지아자천
상황대로 수용하고 천명을 즐기면	安土樂天 안토낙천
마음의 태연함이 유지되리라	其中泰然 기중태연

출처 『회재집』

「자신잠 自新箴」: 유배지에서 새로운 다짐을 읊다

학문은 도 얻기를 추구하였고	學求造道 학구조도
뜻은 인을 체득함에 두었지만	志在體仁 지재체인
행실이 신명과 하늘을 저버려	行負神天 행부신천
재앙이 나의 몸에 닥쳐왔도다	災及其身 재급기신
나라에 충성으로 보답 못하고	忠虧報國 충휴보국
어머님 곁을 떠나 불효했기에	孝缺違親 효결위친
나의 몸을 돌이켜 허물 살피니	反躬省咎 반궁성구
고인에 대한 흠모 깊어지도다	有慕古人 유모고인
천도가 돌고 돌아	天道循環 천도순환
먼 변방에 봄이 오매	絶徼回春 절요회춘
밤늦도록 발분하여	中宵發憤 중소발분
덕을 일신시키기를 생각하노라	思新厥德 사신궐덕

출처 『회재집』



유배지에서의 7년,

유배지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저술에 힘쓰고 하늘과 임금과 부모를 정성으로 섬기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자 항상 노력하다.

곤궁에 처하고 우환을 당하여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학문에 정진하고 저술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온종일 힘쓰고 밤에도 조심하였고, 책상 옆에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써 놓았는데,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 하늘을 섬기는 데 미진함이 있지는 않았는가. 임금과 부모를 섬기는 데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마음가짐에 바르지 못한 점이 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내용이었다.

출처 『회재집』

강계 유배지에서 명저를 남겨 대학자로 우뚝 서다

1549년 59세 『대학장구보유』 지음

1550년 60세 『봉선잡의』, 『구인록』, 「진수팔규」 지음

1553년 63세 『중용구경연의』를 완성하지 못한 채 강계 유배지에서 돌아가심

대학장구보유

大學章句補遺

독락당 소장 / 1550년경 / 1책 / 필사본 / 보물 제586-2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주자의 「대학장구」에서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장구 章句 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진 것을 보충 補遺 하여 지은 책이다.

봉선잡의

奉先雜儀

독락당 소장 / 1550년경 / 1책 / 필사본 / 보물 제586-5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주자의 「가례 家禮」와 기타 선배 학자들의 주장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고유한 제사 의식과 절차를 종합하여, 당시의 시대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긴 제사 의식과 절차를 서술한 책이다.

구인록

求仁錄

독락당 소장 / 1550 / 2책 / 필사본 / 보물 제524-2-5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성현들의 여러 책에서 인仁에 관한 내용만 뽑아 공부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한 책이다. 간혹 선현들의 생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놓은 곳도 있다.

중용구경연의

中庸九經衍義

독락당 소장 / 1553 / 9책 / 필사본 / 보물 제58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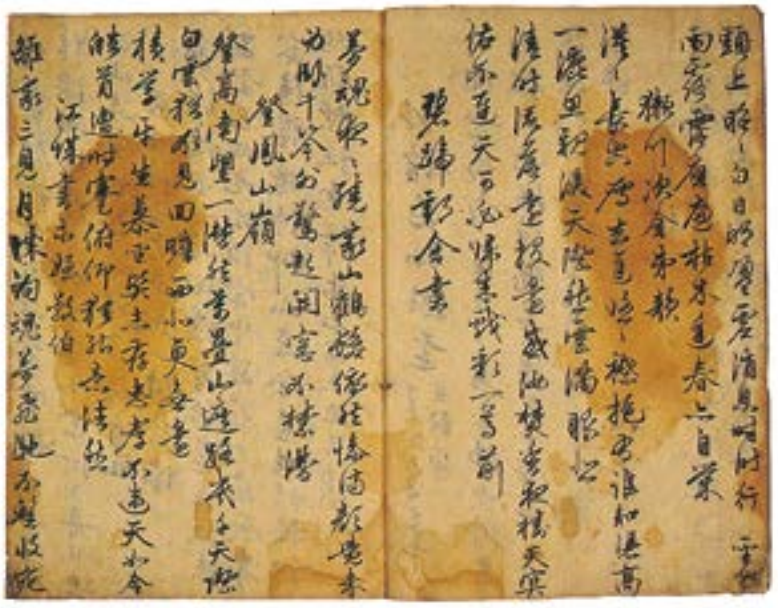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사서 四書 의 하나인 「중용 中庸 」의 제20장에 나오는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칙 九經 '에 대해 뜻을 설명한 衍義 책으로,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그 해 11월 23일에 돌아가셨다.

서천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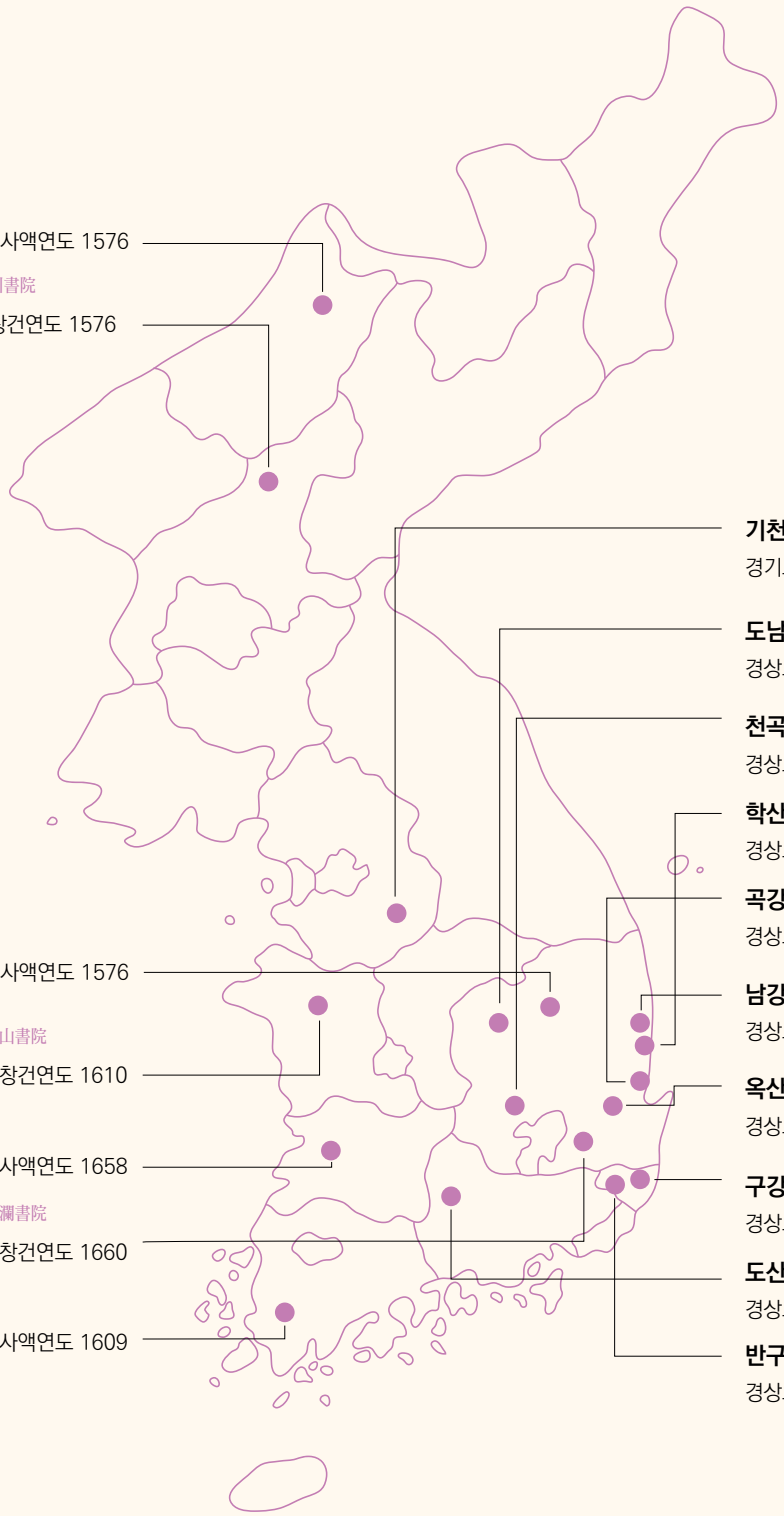
西遷錄

독락당 소장 / 1548-1553 / 1책 / 필사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지은 시 詩 모음집이다. 서천록 西遷錄 은 '평안도를 가리키는 관서 關西 의 강계 고을에 유배 가서 遷 쓴 시를 기록했다 錄 '는 뜻이다.



04 전국의 선비, 회재 선생을 기억하며 따르다



경현사 景賢祠
평안도 강계 창건연도 1576 사액연도 1576

희천서원 熙川書院
평안도 희천 창건연도 1576

기천서원 沂川書院
경기도 여주 창건연도 1580 사액연도 1582

도남서원 道南書院
경상도 상주 창건연도 1606 사액연도 1677

천곡서원 川谷書院
경상도 성주 창건연도 1558 사액연도 1573

학산서원 鶴山書院
경상도 청하 창건연도 1692

곡강서원 曲江書院
경상도 흥해 창건연도 1607

빙계서원 氷溪書院
경상도 의성 창건연도 1556 사액연도 1576

남강서원 南江書院
경상도 영덕 창건연도 1605

인산서원 仁山書院
충청도 아산 창건연도 1610

옥산서원 玉山書院
경상도 경주 창건연도 1572 사액연도 1573

화산서원 華山書院
전라도 전주 창건연도 1624 사액연도 1658

구강서원 鷗江書院
경상도 울산 창건연도 1679 사액연도 1694

관란서원 觀瀾書院
경상도 자인 창건연도 1660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상도 거창 창건연도 1661 사액연도 1662

경현서원 景賢書院
전라도 나주 창건연도 1583 사액연도 1609

반구서원 盤龜書院
경상도 언양 창건연도 1712

3.

아들과 손자, 옥산문중 명문가의 기틀을 다지다

회재 선생의 아들 잠계 이전인 1516~1568 은 강계 유배지에 함께 따라가 7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1553년 겨울 회재 선생이 돌아가시자, 홀로 3개월여 동안 아버지의 관을 꽁꽁 얼어붙은 평안도와 강원도의 산길을 거쳐 고향 경주까지 운구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의 선영에 모셨습니다. 정성을 다해 삼년상 三年喪 을 치르고 아버지가 유배지 강계에서 작성한 정치개혁 방안 「진수팔규 進修八規」를 명종 임금에게 올리어 회재 선생의 복권과 명종 묘정의 배향, 문정 文正 시호 諡號 의 하사를 성사시켰습니다.

손자 구암 이준 1540~1623 은 아버지 이전인의 뜻을 이어받아 회재 선생의 위업을 역사에 길이 전하고자 평생을 바쳤습니다. 1572년에 이언적을 배향한 서원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2년 후 옥산서원 玉山書院 이란 이름으로 사액 賜額 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유고를 편집하고 퇴계 이황의 행장, 소재 노수신의 서문, 미암 유희춘과 초당 허엽의 발문을 받아 1575년에 목판본 10권의 『회재선생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문원공 文元公 이언적은 우리나라 다섯 현인 東方五賢 의 한 분으로 추존되어 1610년에 성균관의 문묘 文廟 에 배향되었습니다.

회재 선생의 위업이 아들 이전인과 손자 이준의 피나는 노력으로 역사에 길이 전해지면서 여주이씨 옥산문중이 명문가의 기틀을 다져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01 아들 이전인 李全仁, 1516~1668, 아버지를 향한 지극 효성

아들 이전인,

지극정성으로 아버지 이언적을 받들어 효를 행하다.

이전인 李全仁, 1516~1568

회재 선생의 아들이다. 회재 선생이 평안도로 귀양 가는데 따라가 밤낮으로 옆에서 시중을 들면서 말씀과 행동을 반드시 기록하여 『관서문답록 關西問答錄』을 만들었다. 회재 선생이 돌아가시자 관을 싣고 돌아오는데 얼음과 눈이 산에 가득 차 상여가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나무꾼이 흙을 길에 뿌려 편안히 가게 하자 이전인이 관 앞의 엎드려 있으니 보는 사람이 눈물을 뿌리었다. 상 喪 을 마치고 회재 선생이 쓴 「진수팔규 進修八規」를 상소하였다. 명종 임금이 (경상도) 감사 監司 에게 명을 내려 이르기를 "지금 이전인이 상소한 말을 보니 몸은 비록 초야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진수 進修 한 정성을 잊지 않으니 진실로 등용함이 옳다." 하고 선생의 관직을 복직시키도록 하였다. 또 회재 선생의 문집을 (두 아들 준과 순을 시켜) 퇴계 선생 문하에 왕복시켜 편찬하고자 하니 퇴계 선생이 일찍이 그 전인 를 칭찬하기를 "시 詩 ·서 書 를 익혔으니 의로운 방도를 안다."고 하였다.

출처 『동경잡기 東京雜記』 권2 효행 편

동경잡기

東京雜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한고조62-4 / [1845] / 3책 / 목판본

'동경잡기'는 경주를 가리키는 동경 東京 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록 雜記 이란 뜻이다. 1669년 현종 10 경주부윤 민주면 閔周冕, 1629-1670 이 작자 미상의 『동경지 東京誌 』를 편집·보완하여 『동경잡기』라고 이름을 바꿔 간행하였고, 1711년과 1845년에 증보 간행하였다. 효행 편에 아버지 이언적에 대한 아들 이전인의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이언적,

아들 이전인의 효성에 감동하여 독락당과 토지, 노비를 상속하다.

「효성별급분재기 孝誠別給分財記」

1553년 8월 6일, 서자 이전인에게 주는 상속문서

아래처럼 상속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네가 유배지로 찾아와 밤낮으로 함께 하면서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한 정이 심히 가상하므로, 비 婢 덕비의 셋째 노 奴 석수 임오생, 노 奴 임석의 둘째 노 奴 금동 임인생, 구입한 비 婢 매금의 넷째 한양대, 비 婢 화비의 셋째 노 奴 금석 병인생, 구입한 비 婢 자비, 자비의 둘째 노 奴 명복, 비 婢 금대를 내 여동생과 맞바꾼 비 婢 수금, 금천에 사는 노 奴 나은만, 두며원에 소재한 이 李 자 164번 논 73짐 25마지기, 석교원 소재 위 魏 자 41번 논 13짐 9마지기 과 6마지기, 송하원에 호 號 자 논 10번 안에 25짐 1섬지기, 정혜동 옥산마을 소재 논 1섬지기, 밭 3섬지기, 같은 동네의 집 한 채를 상속하는데, 비 수금·한양대 및 석교원의 논은 너의 어머니에게 전에 이미 상속하였던 것이므로 네가 오래도록 맡아보도록 할 것.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11]

11
이 도록에서 출처를 『바위틈에 핀 들꽃』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2007, 『바위틈에 핀 들꽃』(명가의 고문서 ④ 여주이씨 독라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가리킨다. 번역 문구 중에는 도록 편집자가 현대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고친 부분도 있다.

효성별급분재기

孝誠別給分財記

독락당 소장 / 1553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55호

강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회재 선생이 강계 유배지에 함께 따라와 살면서 지극 정성을 다한 아들 이전인의 효성에 감동하여 1553년 8월 6일 독락당과 토지, 노비를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다.

회재 선생의 본처 정경부인 함안박씨,

서자 이전인의 효성에 감동하여 노비를 증여하다.

「함안박씨별급입안 咸安朴氏別給立案」

1566년 9월 1일, 남편의 서자 이전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남편께서 8년간 유배당했을 때에 그 형세와 모습이 고단하였는데, 어린 네가 아침저녁으로 그 분을 받들어 모셨으니, 진실로 먼 곳에서 원통한 몸을 가눌 길이 없었을 터에 위로될 만 했을 것이요, 머나먼 곳에서 부모상을 당하자 어린 너의 힘으로 초상을 치르며 온갖 일을 도맡았으며, 이후에 누굴 믿고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면서 (운구하여) 돌아왔는지, 오로지 너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3년 여묘와 제사를 한결같이 예로써 하였으므로 내가 몸소 이후의 제반사를 너에게 모두 맡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너의 한결같은 효심에 애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으므로 내가 상속받은 비 婢 정덕의 셋째 노 奴 막송 28세 , 막송의 첫째 비 婢 분이 2세 등을 증여하며 그 노비의 자식 모두를 영원토록 부려먹도록 하되 차후에 분쟁이 생기거든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관에 고할 것.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함안박씨별급입안

咸安朴氏別給立案

독락당 소장 / 1556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56호

회재 선생의 본처 함양박씨가 서자 이전인이 아버지의 강계 유배지에 따라가 함께 살면서 지극 정성을 다해 모시고 3년 시묘살이와 제사를 한결같이 예禮로 행한 효성에 감동하여 노비를 증여한다는 내용을 경주부로부터 공증 받은 문서다.

02 문원공 이언적, 종묘의 명종 묘정에 배향되다

아들 이전인,

아버지 이언적의 복권에 힘을 실어줄 명문 고위 공직자와의 교류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이전인이 받은 편지가 전해지는 명문 고위 공직자

인물		최고 관직	
이름	생몰년	이름	품계
이 황	1501~1570	우찬성	종1품
박계현	1524~1580	호조판서	정2품
노수신	1515~1590	영의정	정1품
정유일	1533~1576	대사간	정3품

잠계 이전인,

퇴계 이황의 조언을 받아 스스로 호를 짓다.

「도산심방기서 陶山尋訪記序」

내 어찌 일찍이 호 號 가 있었겠는가. 1561년 가을 도산 퇴계 선생을 뵈오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호가 있는가?" 하셨다. 내가 사양하며 감히 갖지 못한다고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망설일 것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다. 그 뒤 설 때 옥봉 玉峯, 옥계 玉溪 두 가지 호를 써서 선생께 여쭈었더니 선생께서 답하시기를 "호 號 로서는 두 가지가 다 좋으나 회재 선생께서 평소에 산의 이름으로 스스로 호를 짓지 아니하셨고, 그곳에 서원을 짓게 되면 조정에서 사액 賜額 을 내릴 때 산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 이 호는 피하고 계산 溪山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것을 취하라."고 하시었다. 글을 받들고 지극히 황송하여 가만히 생각하니, '이 고을의 언덕, 골짜기, 돌, 물, 구비, 모퉁이 어느 하나도 아버님께서 쉬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데 감히 호 號 로 지칭해서 아버님의 자취가 남아 있는 유적을 더럽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한 한 글자도 청하지 아니하면 도산 선생께서 보살펴 아껴주신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저 면천 眠川 한 골짜기는 깊숙해서 아버님의 유적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호 號 를 하면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면 眠 자는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니므로. 면 眠 자를 잠 潛 으로 해석하고 옛 사람 중에서도 또한 잠계 潛溪 라 칭한 이가 있으니, 이 두 글자는 내가 스스로 짓는 호 號 에 어긋남이 없지 않겠는가. 곧 다시 도산 선생께 여쭈었다. 1568년 3월 16일 잠옹 潛翁 이 스스로 서문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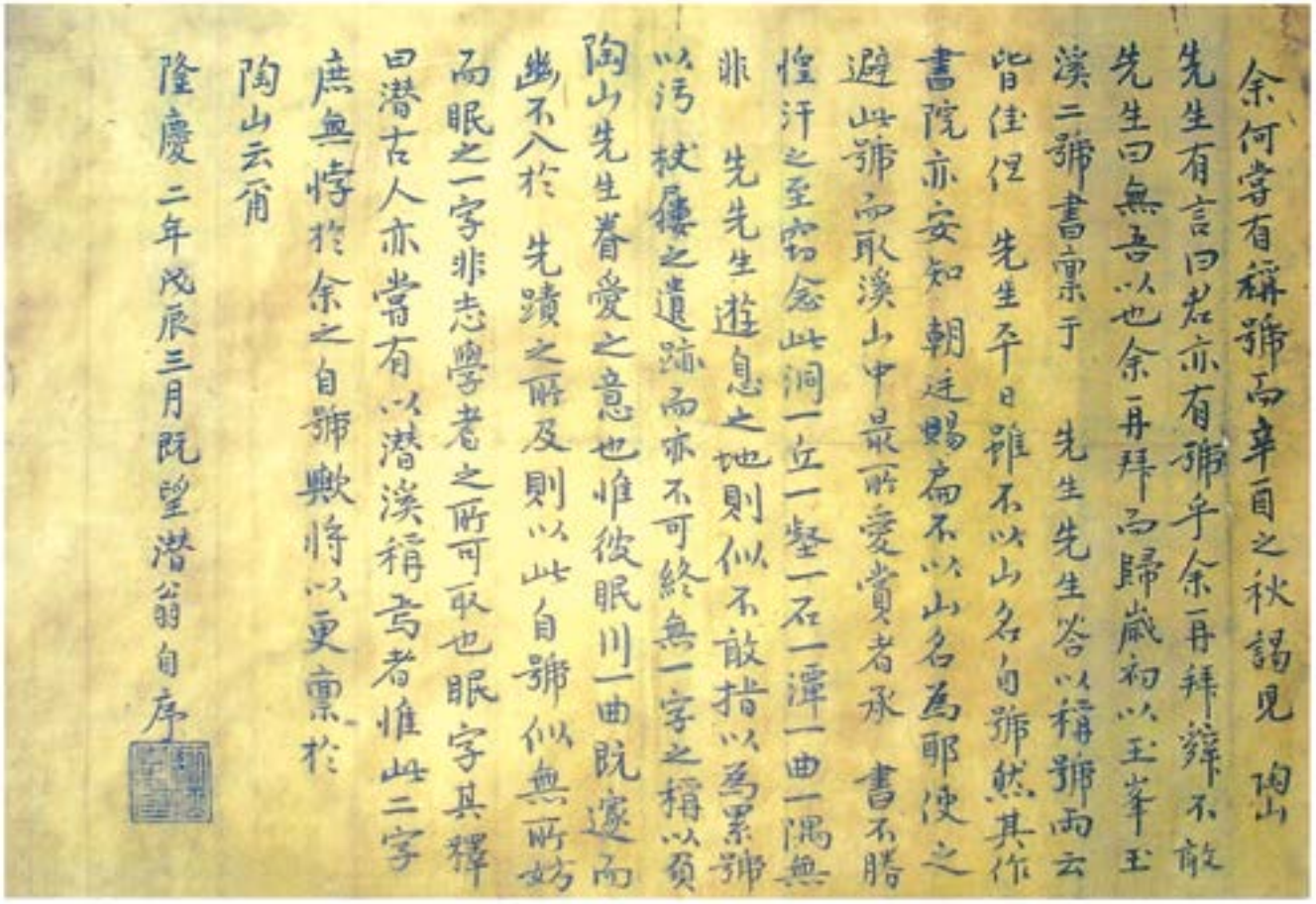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도산심방기서

陶山尋訪記序

독락당 소장 / 1568 / 1장 / 필사본

잠계 선생이 자신의 호를 짓게 된 이야기를 스스로 써놓은 글이다.


余何嘗有稱號而辛酉之秋謁見 陶山
先生有言曰君亦有號乎余再拜辭不敢
先生曰無吾以也余再拜而歸歲初以玉峯玉
溪二號書稟于 先生先生答以稱號而云
皆佳但 先生平日雖不以山名自號然其作
書院亦安知 朝廷賜扁不以山名爲耶使之
避此號而取溪山中最所愛賞者承 書不勝
惶汗之至竊念此洞一丘一壑一石一潭一曲一隅無
非 先生遊息之地則似不敢指以爲累號
以汚 杖屨之遺蹟而亦不可終無一字之稱以負
陶山先生眷愛之意也惟彼眠川一曲既邃而
幽不入於 先蹟之所及則以此自號似無所妨
而眠之一字非志學者之所可取也眠字其釋
曰潛古人亦嘗有以潛溪稱焉者惟此二字
庶無悖於余之自號歟將以更稟於
陶山云爾
隆慶二年戊辰三月既望潛翁自序

퇴계 이황,

회재 선생의 학덕과 인품을 흠모하는 마음을 담아 자옥산 紫玉山 과 오대 五臺 , 용추 龍湫 의 이름을 써서 이전인에게 보내다.

퇴계수적

退溪手跡

독락당 소장 / 필사년 미상 / 7장 / 필사본 / 보물 제526-2호

회재 선생이 직접 이름을 붙인 옥산마을의 세심대 洗心臺 ·관어대 觀魚臺 ·영귀대 詠歸臺 ·탁영대 濯纓臺 ·징심대 澄心臺 의 5대 五臺 와 자옥산 紫玉山 , 용추 龍湫 등의 이름을 퇴계 이황이 직접 써서 독락당에 보낸 친필 글씨다.

퇴계 이황,

회재 선생의 행장 行狀 을 부탁한 아들 이전인의 편지에 화답하다.[12]

「퇴계선생수찰 退溪先生手札 」

지난번에 사람이 돌아올 때 서찰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바를 잘 알았습니다.…(중략)…행장 行狀 은 본래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의리상 거절하기 어려운 바여서 삼가 초고 草稿 를 써 두었지만 혹 잘못되거나 빠진 곳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심스러워 감히 가벼이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 그대 이전인 에게 보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나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좋고 나쁨을 헤아리기 어려워 시끄러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당분간 훗날을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중략)…아직 차도가 없다는 것은 지금 그대의 증세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음을 알겠으니 걱정되는 마음 말할 수 없습니다. 섣달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삼가 답장을 씁니다.

1566년 12월 7일 계로 溪老

사람이 와서 서찰을 보고서 예전 증세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니 걱정되는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중략)…지금 그대의 병이 또한 우연이 아닌 것이 염려스러우니 비록 서로 만나고자 하나 서로 만날 수 없는 형편이니 어찌하겠습니까. 전에 이야기한 행장 行狀 의 초고가 완성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나 아직 정사 正寫 하지 못하여 돌아가는 인편에 부치지 못하니 대단히 유감입니다. 베껴 스는 대로 인편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달 보름 전후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선왕 先王, 명종 의 실록청이 설치되면 본가 本家 에 있는 행장과 모든 자료들을 올려 보내라고 할 것이니 그대는 모쪼록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별지에 자세히 쓰겠습니다. 이만 줄이고 삼가 답장합니다.

1567년 10월 24일

황 滉 은 등불 아래에서 눈이 어두워 글자가 말이 아닙니다.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12
퇴계 선생은 잠계 이전인에게 다섯 번 편지를 보냈으나, 세 첩은 화재로 손실되어 독락당에는 두 첩만 보관되어 있다.

퇴계선생수찰

退溪先生手札

독락당 소장 / 1567·1567 / 1장 / 필사본 / 보물 제524-2-9호

아들 이전인이 회재 선생의 행장 行狀 을 부탁하자 퇴계 이황이 답장으로 보내온 편지 두 통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이다.

* 행장 行狀 : 죽은 사람의 행실을 간명하게 써서 보는 이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직접 보는 것처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글

문봉 정유일,

잠계 선생과 작별하는 심정을 담아 칠언율시를 지어 편지로 보내다.

「정유일서간鄭惟一書簡」

이전인 선생과 작별하며 지은 시

서울에서 만난 지 해가 바뀌었는데
오늘 밤에 만나니 매우 기이하네.
상을 나란히 하여 평생 겪은 일을 말하고
술을 마시며 지난 날 그리움 잊네.
세상의 슬프고 기쁨이 어찌 정해진 것이 있으랴
인간의 모이고 흩어짐은 본래 기약이 없다네.
내일 아침 또 갈림길에서 작별하리니
헤어지는 안타까움은 오직 조각달만 알리라.

선현을 경양하여 문하에서 배우지 못했지만
집안에 전형이 전해오는 것이 기쁘네.
마음으로 선을 조아함은 천성으로 인하고
학문을 하여 몸을 닦음은 단서를 터득했네.
병이 들어도 부지런히 음식을 마련하고
스승 찾아 멀리 산원을 방문했네.
저문 해 하늘가에 기러기 많으니
귀찮다 말고 자주 소식 전하여 주오.

1563년 동짓달 상순에 봉원 정유일 지음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정유일서간

鄭惟一書簡

독락당 소장 / 1563 / 1장 / 필사본

퇴계 이황의 제자로 사간원의 정언 正言, 정6품 으로 있던 문봉 정유일 1533~1576이 잠계 선생과 작별하며 써준 칠언율시 七言律詩 두 편이다.

관원 박계현,

잠계 선생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다.

「박계현서간 朴啓賢書簡 」

아드님 賢胤 이 올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마치 얼굴을 대한 것 같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재 선생이 남긴 행실 몇 단락은 지금 비록 「행장 行狀 」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다른 날 비명 碑銘 에 이어서 짓게 되면 함께 적어도 될 듯합니다. 또 비문과 지갈 誌碣 은 지을 만 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려고 모쪼록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생각이 아득합니다. 봄이 오면 옥산마을 紫溪 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갖추지 못하고 답장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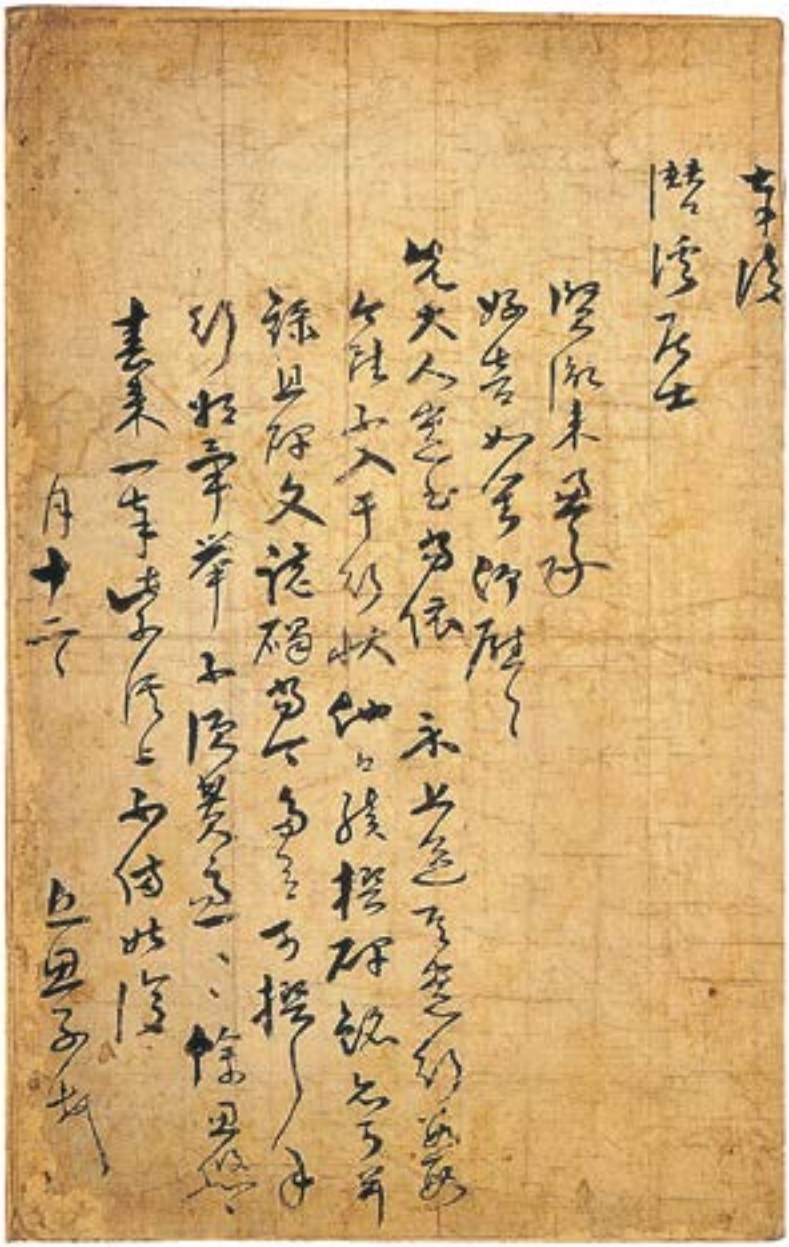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박계현서간

朴啓賢書簡

독락당 소장 / [1560년대 말] / 1장 / 필사본 / 보물 제524-2-12호

병조판서를 지낸 관원 박계현 1524~1580 이 잠계 선생에게 보낸 편지다.



아들 이전인,

회재 선생의 「진수팔규」를 명종 임금에게 바치다.

고 故 찬성 贊成 이언적의 아들 이전인이 이언적이 지은 「진수팔규 進修八規 」를 바치고 이어 상소하기를, "신은 들으니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만물을 낳고 길러서 그 공이 빛나고 땅은 낮은 데 처하여 그 기운이 위로 올라간다.' 합니다.…(중략)…삼가 생각건대, 신의 아비인 언적이 지은 「진수팔규」는 아마도 거룩한 공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 같기에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바치니, 전하께서는 채택해 주소서. 신의 아비가 평생 동안 가진 애군충국 愛君忠國 의 생각은 험난한 역경에 처해서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중략)…늙은 옛 신하의 보국하기 위한 뜻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임종 시에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말하기를 '나는 세 임금에 걸쳐 받은 은총이 산 같은데 그에 대한 보답이 전연 없었으니, 먼 변방에 버려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성상의 인자와 용서를 힘입어 7년 동안 변방 거친 땅에서 천수를 길이 보존하게 되었으니, 헤아릴 수 없는 그 성은은 분골쇄신하더라도 갚기 어렵다. 다만 생각건대, 내가 지은 「진수팔규」가 성학 聖學 에 도움이 있을 것이니, 만일 잘 올려져서 혹 채택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옛사람도 죽음에 임하여 유표 遺表 를 남긴 일이 있었으니 곧 이런 뜻에서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운명하였습니다.…(중략)…성명성시 聖明盛時 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므로 신은 병든 몸을 이끌고 관도 官途 를 기어서 신의 아비가 지은 이 글을 엄한 형벌을 피하지 않고 바쳐 성상께서 열람하시기를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애긍히 여기시어 살피어 주소서." 하였는데, 승정원에 명을 내리기를, "초야에 있는 몸이 부친의 뜻을 잊지 않고 이 팔규를 올렸으니, 내가 그 성의를 가상히 여긴다. 이 뜻을 경상도 감사로 하여금 이전인 李全仁 에게 전유하게 하라." 하였다. 『명종실록』1566년(명종 21) 9월 4일

진수팔규

進修八規

독락당 소장 / 1550 / 1장 / 필사본 / 보물 제586-4호

회재 선생이 유배지인 강계에서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8개의 조목을 서술한 상소문으로, 아들 이전인이 1566년 8월에 명종 임금에게 올리자 9월 4일에 회재 선생의 복작 전교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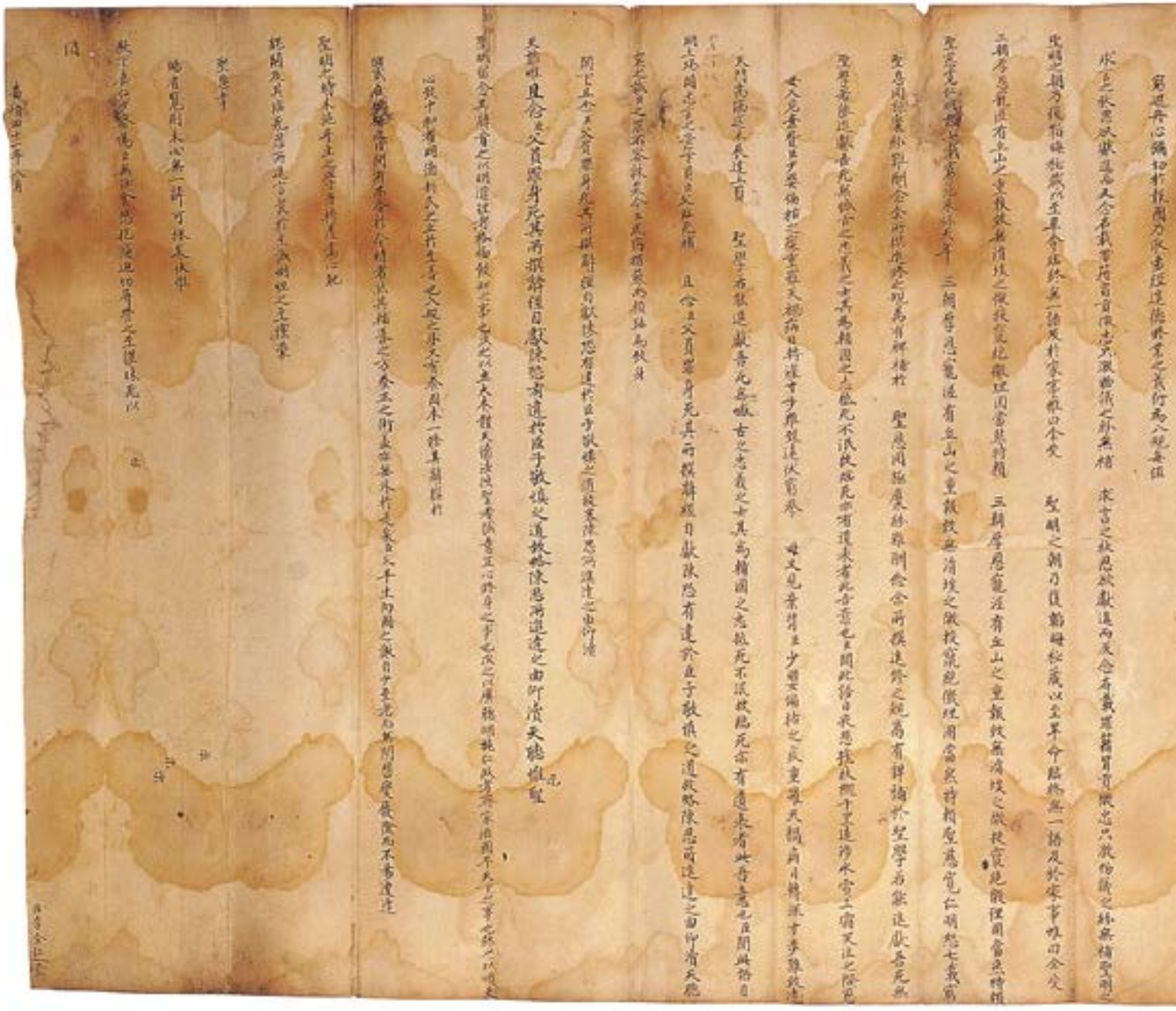
進修八規
臣謹按孔子贊易於乾之九三發明爲學之道
曰君子進德修業忠信所以進德也修辭立其
誠所以居業也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
可與存義也是故居上位而不驕在下位而不
憂蓋君子志於學日乾夕惕無時間斷故德之
進者日益業之修者日益廣臣不佞又取進
德修業之義衍爲八規以爲
聖學之助
清閑之燕儻
賜省覽深味而力行之則帝王存心出治之源繼天

이전인상언

李全仁上言

독락당 소장 / 1562 / 1장 / 필사본 / 보물 제1473-30호

아들 이전인이 회재 선생의 '진수팔규 進修八規'를 명종 임금에게 올리기 위하여 쓴 글로, 명종 임금에게 올라간 시기는 1566년 9월이다. * 상언 上言 : 조선시대 개인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문서양식.



아버지 이언적,

아들 이전인의 지극정성 노력으로 복권되다.
아들 이전인은 선조 임금에게 종1품의 판사를 하사받았으나 건강상 불취 不取 하다 11월에 별세하다.

임금이 이언적의 유서를 가져오도록 명하였다. 처음 언적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역경 易經 』에 있는 진덕수업 進德修業 의 뜻을 넓혀서 자세히 해설하여 8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1. 도리 道理 를 밝힐 것, 2. 대본 大本, 가장 큰 근본 을 세울 것, 3. 천덕 天德 을 본받을 것, 4. 왕성 往聖, 과거의 성인 을 본받을 것, 5. 총명 聰明 을 넓힐 것, 6. 인정 仁政 을 베풀 것, 7. 천심 天心 을 따를 것, 8. 중화 中和 를 이룰 것 등으로 성정 聖政 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다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감히 올리지 못했었다. 이제 와서 그의 서자 전인이 상소하며 올렸다. 임금은 전지를 내려 장려하고 즉시 언적의 관작 官爵 을 회복시켰으며, 이어 하교하기를, "이언적은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의 학행이 있는 사람이다. 근래에 그만이 저술이 있는데 그의 학문은 정자와 주자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모두가 도리 道理 이다. 그것을 명나라의 사신에게 보이고 싶으니 그의 집에 있는 유서 遺書 를 모두 찾아내어 후학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선조수정실록』1567년(선조 즉위) 10월 5일

아버지 이언적,

시호를 받고 종묘의 명종 묘정에 배향되다.

1569년 8월에 문원 文元 으로 증시 贈諡 13하고 [도덕을 갖추고 학문이 넓은 것을 문 文 이라 하고, 의 義 를 주로 하고 덕을 행한 것을 원 元 이라 한다.] 명종의 묘정 廟廷 에 배향 配享 하였다.

출처 『회재집』

13
왕과 왕비,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가 죽은 뒤에 그의 행적을 찬양하여 국왕이 시호(諡號)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국조유선록

國朝儒先錄

독락당 소장 / 1570 / 금속활자본 / 1책 / 보물 제524-2-8호

선조 임금이 부제학 유희춘 1513~1577 에게 명하여 당시 네 사람의 현자 四賢 로 알려진 김굉필 1545~1504, 정여창 1450~1504, 조광조 1482~1519, 이언적의 글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03 이전인, 회재 선생의 유일한 제자

스물한 살의 청년 이전인,

하늘에 맹세하다.

「서천 誓天 」

차라리 성인을 배워 미치지 못할지라도 일예일선 一藝一善 으로서 이름을 얻으려 아니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조금도 게으름이 없을 것이니, 근면하고 진지하게 하고 몹시 두려워하며 조심하면서 임금과 아버지와 귀신이 위에 있는 것같이 하고, 깊은 연못 얇은 얼음 아래에 있는 것같이 하여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하리니, 진실로 여기에 어긋남이 있다면 이 맹세의 말이 있다.

1536년 7월 경진

일념 一念 의 사이, 일사 一思 의 틈이라도 천리 天理 와 인욕 人欲 의 싹을 살피어, 그것이 천리라면 힘써 키우고 인욕이면 능히 끊으리라.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늘이 반드시 죄주리라.

1536년 12월 기해에 덧붙여 쓰다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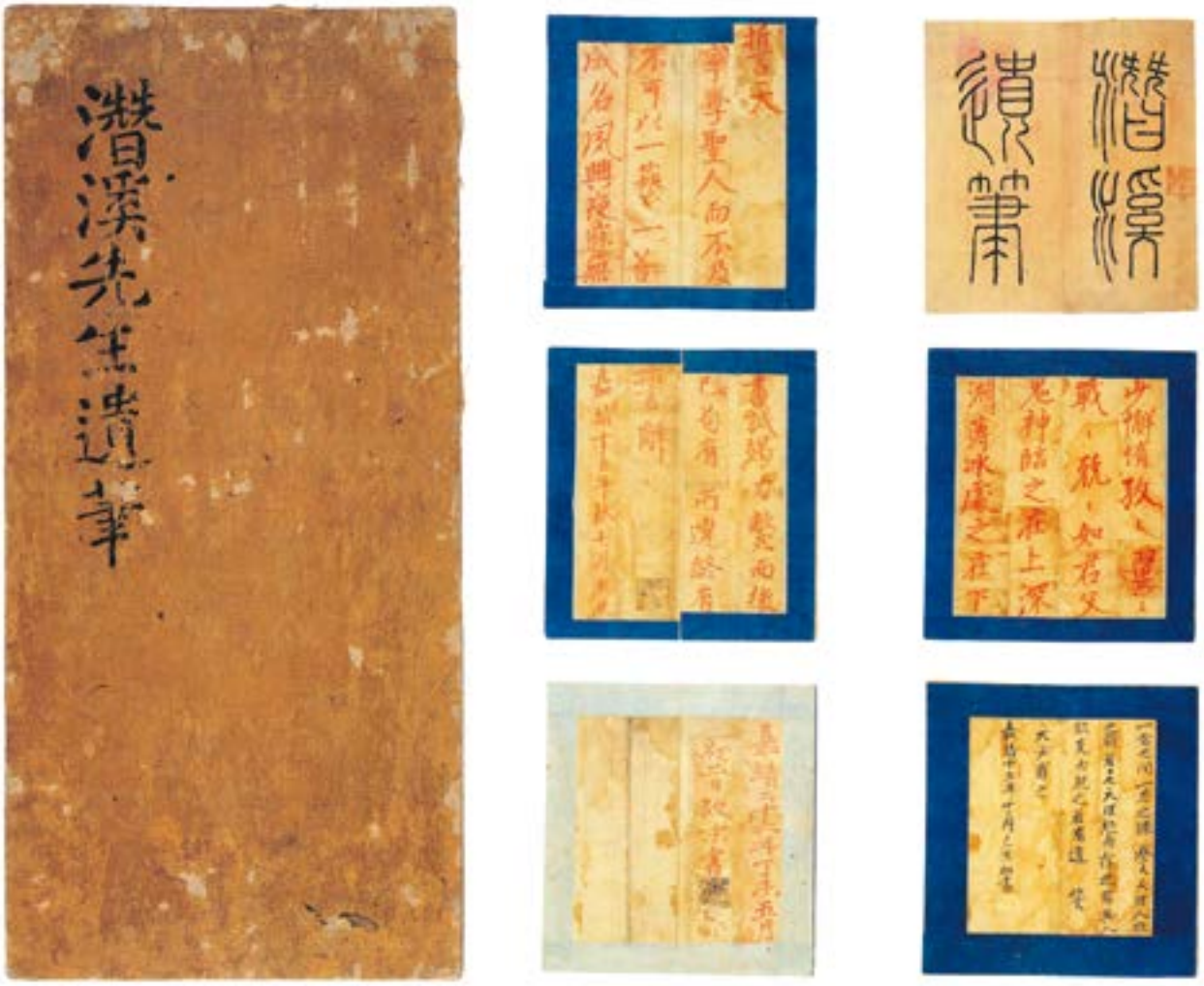
잠계선생유필

潛溪先生遺筆

독락당 소장 / 1536 / 필사본 / 1첩

잠계 선생이 스무 살의 나이에 평생 동안 경계하면서 지켜나가겠다고 하늘에 맹세한 다짐인 서천잠 誓天箴 의 친필본을 첩으로 만든 것이다.

* 유필 遺筆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써서 남겨놓은 글씨



제자를 키우지 않은 회재 선생의 삶

학문 교육과 제자 키우기는 훌륭한 신진 관료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에 당파를 만들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당파에 따라 정치를 좌우하는 폐단도 갖고 있다. 회재 선생은 장점보다는 폐단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교육과 제자 키우기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회재 선생 생전의 유일한 제자는 아들 이전인밖에 없었다.

30대의 이전인,

아버지 이언적과 문답으로 학문을 배우다.

인 仁, 아들 이전인 이 물어 여쭙기를

"충신 忠信, 충실과 신뢰 하지 않으면서도 군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 대인 大人, 아버지 이언적 께서 말씀하시었다.

"군자로서 어찌 충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에 인이 다시 여쭈어 물었다.

"경 敬 과 성 誠 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대인께서 말씀하시었다.

"성 誠 이라는 것은 순일 純一 하여 쉬지 않는 것을 이른다. 성 誠 의 이름 됨이 지극히 크거니 어찌 성 誠 하면서 경 敬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경 敬 을 지니는 공부가 이미 성숙하여 오래되면 성 誠 하게 되느니라."

- 『관서문답록』의 일부 -

출처 이종호, 2001,『회재 이언적·난세의 성실한 자기경영자』

관서문답록

關西問答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승계古051-4 / 1751 / 목판본 / 1책

강계 유배지에서 회재 선생과 아들 이전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부자간에 학문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과 일화를 적어놓은 책이다.

잠계유고

潛溪遺稿

독락당 소장 / 17~18세기 / 필사본 /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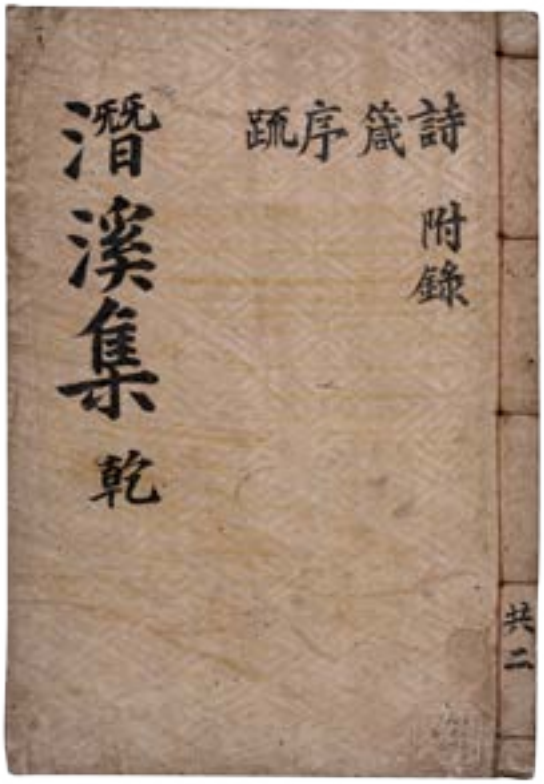
잠계 선생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정리한 필사본으로, 여백에 교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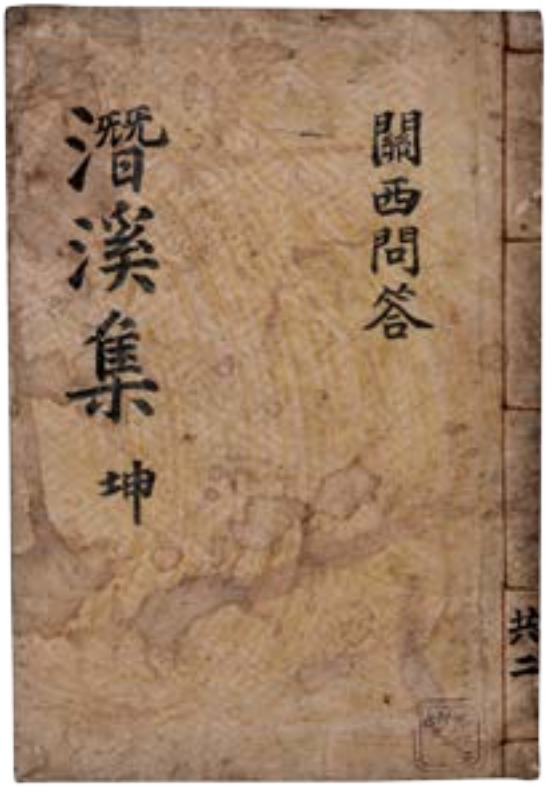
잠계집

潛溪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고3648-62-472 / 1847 / 목판본 / 2책

잠계 선생의 유고를 모아 장산서원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문집이다.





잠계집 책판

潛溪集 冊板

독락당 소장. 한국국학진흥원 기탁 / [1847]

잠계 선생의 문집 『잠계집』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이다.

잠계 이전인,

장산서원에 배향되다.

18세기 중반 잠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차례 상서를 올렸으나 관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1776년경 잠계 선생을 기리기 위한 독자적인 사우 祠宇 건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주대도호부의 북안면에 소속되어 있던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의 천장산 아래에 장산사 터를 정했고, 7월 29일에 그 동안의 사우 건설 상황을 알리는 고유제 告由祭 를 올린 후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장산사는 1780년에 완성되어 잠계 선생의 신주 봉안을 위한 향사를 지냈고, 1786년에 장산서원으로 승격되었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고, 2006년 11월 독락당 북쪽에 복원되었다.

장산서원도형

章山書院圖形

독락당 소장 / 1889 / 필사본 / 1장

1780년 잠계 선생을 배향한 장산사 章山祠 가 옥산마을 서북쪽의 영천시 임고면 수성리의 천장산 아래에 설립되었다. 1786년에 장산서원으로 승격되었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이 지도는 훼철된 장산서원 경내에 건립된 건물과 분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899년에 제작되었다.

장산서원심원록

章山書院尋院錄

독락당 소장 / 1803~1810 / 필사본 / 5책

1803년부터 1810년까지 장산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기록한 방명록이다. 방문자의 본관과 성명을 적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방문자의 자字, 출생연도, 방문일자, 방문사유를 기록하였다.

04 손자 이준 李浚, 1540~1623, 아버지 이전인의 유업을 잇다

손자 이준,

할아버지 이언적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 이전인의 유업을 잇기 위해 명문 고위 공직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다.

- 이준 선생이 받은 편지가 전해지는 명문 고위 공직자

인물		최고 관직	
이름	생몰년	이름	품계
윤두수	1533~1601	좌의정	정1품
윤근수	1537~1616	좌찬성	종1품
김성일	1538~1593	관찰사	종2품
이산해	1539~1609	영의정	정1품
유성룡	1542~1607	영의정	정1품
정 구	1543~1620	대사헌	종2품
김장생	1548~1631	도호부사	종3품
정창연	1552~1536	좌의정	정1품
이호민	1553~1634	좌찬성	종1품
장현광	1554~1637	형조참판	종2품
정경세	1563~1633	대제학	정2품
윤 방	1563~1640	영의정	정1품
이정구	1564~1635	좌의정	정1품
이안눌	1571~1637	예조판서	정2품
윤 휘	1571~1644	공조판서	정2품

「유성룡서간 柳成龍書簡」

전에 이틀 밤 묵으며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웠습니다. 헤어진 뒤로 그리운 마음이 갑절이나 깊습니다. 지금 또 사람을 보내 문안하시니 참으로 간곡한 정을 입었습니다. 인하여 돌아가 근심이 없음을 알았으니 더욱 위안이 됩니다. 보내주신 것도 삼가 잘 받았습니다.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데 감사를 입었습니다.

이곳은 그런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이 지문 誌文 을 부탁한 것이 이처럼 부지런하니 어찌 감히 고의로 사양하거나 회피하겠습니까. 다만 이 일은 매우 중요하여 마침내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닌 까닭으로 가볍게 승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뒤에 만일 정신이 조금 안정되고 식견이 조금 진보되면 혹시 부응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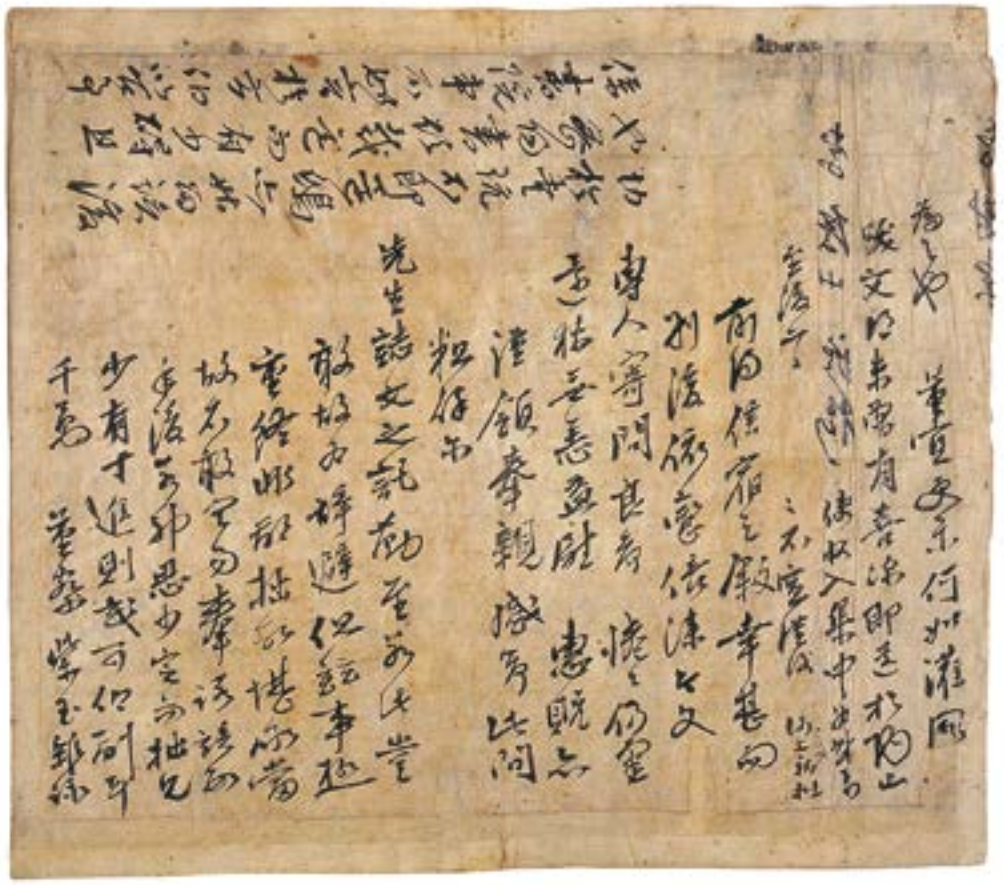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유성룡서간

柳成龍書簡

독락당 소장 / 1588 / 필사본 / 1장 / 보물 제524-2=10호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 1542~1607 이 회재 선생의 지문 誌文 을 부탁한 손자 이준에게 '지문은 중요한 일이므로 경솔하게 허락할 수 없어 완곡하게 사양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답장 편지다. * 지문 誌文 : 죽은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삶의 행적, 무덤이 있는 곳과 그곳의 좌향 등을 적은 글



「이산해서간 李山海書簡」

바야흐로 죄를 엄중하게 논하는 논의에 따라 성 밖에 나가 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린 지가 석 달이 지났고 해도 벌써 바뀌었습니다. 영감 이준 께서 문안 편지를 보내주셨고, 게다가 선물까지 보내셨으니 위안되는 마음 평소보다 배로 더합니다.

저는 조석으로 (임금의) 명이 내려오면 가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찌 다시 만나볼 것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귀양 가는 길이 먼 변방이라면 혹 영원히 이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점칠 수 없으나 영감께서 매우 노력하기 바랍니다.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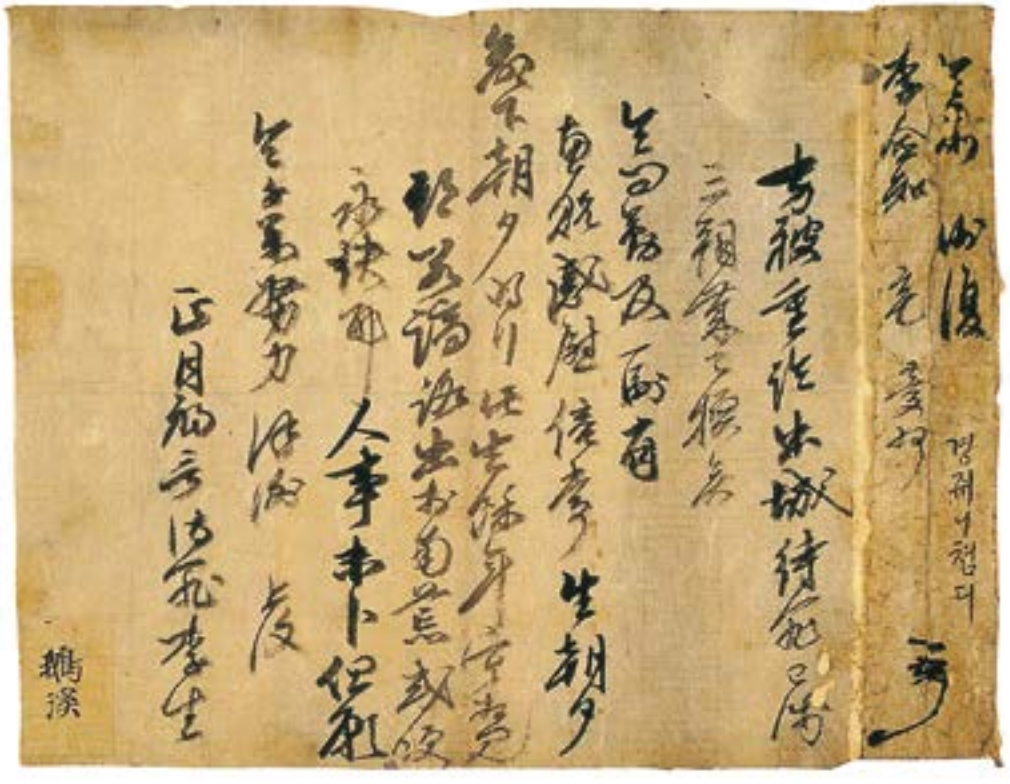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이산해서간

李山海書簡

독락당 소장 / 17세기초 / 필사본 / 1장 / 보물 제524-2-12호

영의정을 지낸 아계 이산해 1539~1609 가 문안 편지와 선물을 보내준 구암 이준에게 자신이 국가의 중요한 논의 때문에 도성 밖에 나가 임금에게 대죄 待罪 하고 있는 정황의 내용으로 답장한 편지다.



손자 이준,

옥산서원 玉山書院 의 설립을 주도하다.

1572년에 손자 이준이 향중에 논의하여 할아버지 이언적을 배향하는 옥산서원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서책을 확보하고 논밭을 사들였으며 노비를 두게 했다. 중앙 정부에서 이를 듣고 특별히 장려하여 경서 經書 와 사서 四書 등의 책을 하사하고 옥산서원이라 사액 賜額 하였다.
옥산서원은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의 하나였고, 현재는 2019년 7월 10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강계에 경현서원 景賢書院 이 세워지다

1576년 평안도 관찰사 김계휘 金繼輝 는 회재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저술하던 강계의 향교 오른쪽에 선생을 위한 사당을 세웠다. 1609년에 서원으로 바꾸었고, 1614년에 경현서원이라 사액 賜額 하였다. 경현서원의 설립은 아들 이전인과 손자 이준이 회재 선생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한 결실이 강계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여지도』 속 강계지도

『輿地圖』 속 江界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한貴古朝61-3 / [1776~1795] / 필사본 / 6책

『여지도』는 1720년대에 편찬된 전국 그림식 고을지도책의 후대 필사본이다. 강계읍성 바로 오른쪽에 '書院 서원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회재 이언적을 배향하여 세운 경현서원 景賢書院 이다.

경현서원

할아버지 이언적의 문집 『회재선생집』을 간행하다

손자 이준은 할아버지 이언적의 유고를 편집하여 1575년에 10권의 『회재선생집』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행장은 퇴계 이황 1501~1570 이, 서문은 소재 노수신 1515~1590 이, 발문은 미암 유희춘 1513~1577 과 초당 허엽 1517~1580 이 쓰는 등 『회재선생집』의 간행에 당대 최고의 문신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회재집

晦齋集

독락당 소장 / [1570년대] / 필사본 / 2책

회재 선생 사후, 아들 이전인은 아버지의 유고를 수습 정리하고 퇴계 이황으로부터 행장을 받아 문집 정고본 定稿本 을 완성하였다. 이 정고본을 바탕으로 손자 이준이 주관하여 1575년에 최초의 목판본 『회재선생문집』을 간행하였다.

회재선생문집

晦齋先生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古3648-62-1154 / 발행년 미상 / 목판본 / 5책

회재 선생의 문집 초간본 1575 이 임진왜란을 거치며 많이 유실되자 옥산서원에서 14권 5책의 목판본을 1600년에 다시 간행하였다. 이후에도 1624년·1631년·1641년·1794년·1926년에 새로운 목판본을 간행하였다.

05 문원공 이언적, 동방오현 東方五賢 으로 문묘에 종사되다

동방오현 東方五賢,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을 문묘에 배향하다.

중외의 대소 신료 · 기로 耆老 · 군민 軍民 · 한량인 閑良人 등에게 김굉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 등을 성균관의 문묘에 종사 從祀 하는 일로 교서를 내리기를, "하늘이 대현 大賢 을 낸 것은 우연치 않은 일로서 이는 실로 성쇠 盛衰 의 기틀에 관계되는 것이다. 덕이 있는 자에게 상사 常祀, 주기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 를 베풀어야 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일이니 존숭하여 보답하는 전례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반포하여 귀의할 바가 있게 한다.…(중략)…그러다가 우리 조종 祖宗 께서 거듭 인덕 仁德 을 베푸시는 때를 만나 참으로 문명을 진작시키는 운세를 맞게 되면서 김굉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과 같은 다섯 신하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염락관민 濂洛關閩 의 제자 諸子, 송나라 때 성리학의 대가들 가 전한 것을 터득하고 격물 格物 · 치지 致知 · 성의 誠意 · 정심 正心 의 공을 이룩한 이들로서 그 법도가 매한가지이니, 참소하고 질시하는 무리들을 그 누가 끼어들게 할 수 있겠는가.…(중략)…내가 왕위를 계승함에 이르러 그들과 같은 시대에 있지 못함을 한탄하며 전형 典刑, 한번 정하여 변하지 않는 것 이 나에게 있어 주기를 바랐으나 구천에서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이에 문묘에 종사하여 제사를 받들면서 백세토록 사표 師表 로 삼게 하는 동시에, 40년 동안 고대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응답하고 천만 세에 걸쳐 태평의 기업 基業 을 열 수 있도록 하리라 생각하였다. 이는 대체로 이만큼 기다릴 필요가 있어서 그러했던 것이니, 어찌 하늘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이에 금년 9월 4일에 증 贈 의정부 우의정 문경공 文敬公 김굉필, 증 의정부 우의정 문헌공 文獻公 정여창, 증 의정부 영의정 문정공 文正公 조광조, 증 의정부 영의정 문원공 文元公 이언적 李彦迪 , 증 의정부 영의정 문순공 文純公 이황 등 다섯 현신을 문묘의 동무 東廡 와 서무 西廡 에 종사하기로 하였다.…(중략)…" 하였다. 『광해군일기』1610년 (광해군 2) 9월 5일

문묘 文廟 란?

공자를 중심으로 유교의 성현을 받드는 사당으로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 대성전 大成殿 과 동무 東廡 ·서무 西廡 를 가리킨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정위 正位 로 하여 안자·증자·자사·맹자의 4성 四聖 , 공자의 뛰어난 10명의 제자인 공문십철 孔門十哲 , 송나라 때의 여섯 명의 유학자인 송조육현 宋朝六賢 을 좌우로 배향하였다. 동무에는 중국의 명현 明賢 47위 位 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서무에도 중국 명현의 47위와 우리나라의 명현 9위를 종사 從祀 하였다. 정승 10명이 죽은 대제학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10명이 문묘에 종사된 현인 賢人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문묘에 종사된 우리나라의 18 명현은 통일신라-고려-조선을 거치면서 나라에서 공인한 최고의 정신적 지주에 오른 유학자들을 가리킨다.

동방오현 東方五賢 이란?

문묘의 동무와 서무에 종사된 우리나라 18 명현의 위패는 해 뜨는 동쪽의 동무를 시작으로 동무-서무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향되었다. 조선시대의 인물로는 1610년 광해군 2 에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다섯 분이 처음으로 종사되었고, 이 때문에 다섯 분을 합해 '우리나라의 다섯 현인 賢人 '이란 뜻으로 동방오현 東方五賢 이라 부른다.

문묘의 동무·서무에 종사된 동방 18현

순서	서무		동무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	최치원	857~미상	설 총	655~미상
2	정몽주	1337~1392	안 향	1243~1306
3	정여창	1450~1504	김굉필	1454~1504
4	이언적	1491~1553	조광조	1482~1519
5	김인후	1510~1560	이 황	1501~1570
6	성 혼	1535~1598	이 이	1536~1584
7	조 헌	1544~1592	김장생	1548~1632
8	송시열	1607~1689	김 집	1574~1656
9	박세채	1631~1695	송준길	1606~1672

※ 짙게 표시된 부분이 동방오현이다.

06 신분의 제약을 넘어 명문가의 기틀을 다지다

구암 이준,

국가의 어려운 재정을 도와 가문의 신분 제약을 풀어내고 벼슬길에 오르다.

「이준예조급첩 李浚禮曹給牒」

예조에서 1583년 12월 1일에 받은 국왕의 명령서

병조에서 받은 국왕의 명령서에 '국가가 불행히도 북쪽 오랑캐로 인해 국방은 급박해지고 군량이 모두 소모되었다. 이에 대비하는 계책으로 일반적인 규정만을 고수할 수도 없는 일이니, 서얼로서 무예가 없으나 (곡물 등을 제공하는) 납속 納粟 을 행한 자는 모두 벼슬길을 허락하도록 하고 비변사 또한 같은 논의로 규정을 만들라는 명령이 있었다' 라고 되어 있다. 이번에 학생 이준이 식용 가능한 쌀 평 平, 15말 80석을 안변부로 납속하였으므로 규정에 의거하여 전후 소생 자손을 모두 (벼슬길에) 허락함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이준예조급첩

李浚禮曹給牒

독락당 소장 / 1583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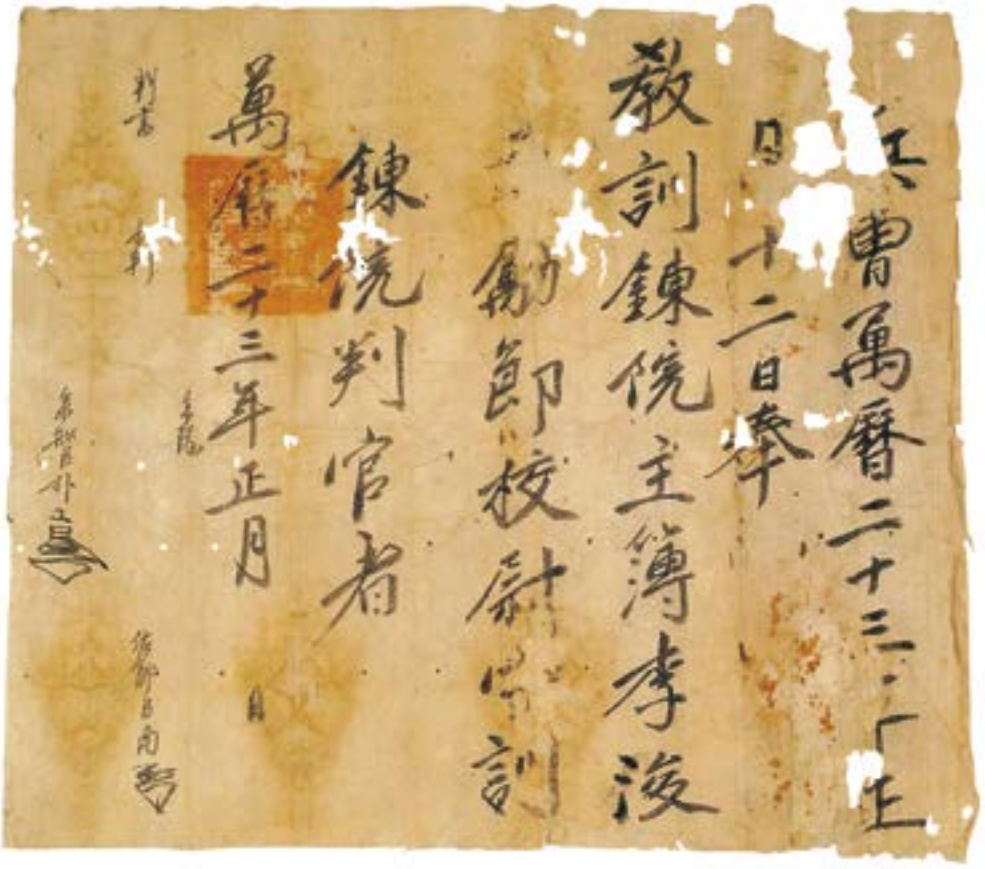
1583년경 북쪽 여진족의 창궐 때문에 군량이 소진되어 국방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구암 이준이 쌀 80섬을 함경도의 안변부에 군량으로 헌납하였다. 이 문서는 이준의 헌납에 대한 보답으로 예조에서 납속 규정에 의거하여 서자 계통인 이준의 전후 모든 소생에게 벼슬길을 허락한다는 내용이다.

이준훈련원판관고신

李浚訓鍊院判官告身

독락당 소장 / 1595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10호

병조에서 종6품의 훈련원 주부였던 구암 이준을 종5품의 훈련원판관으로 승격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 告身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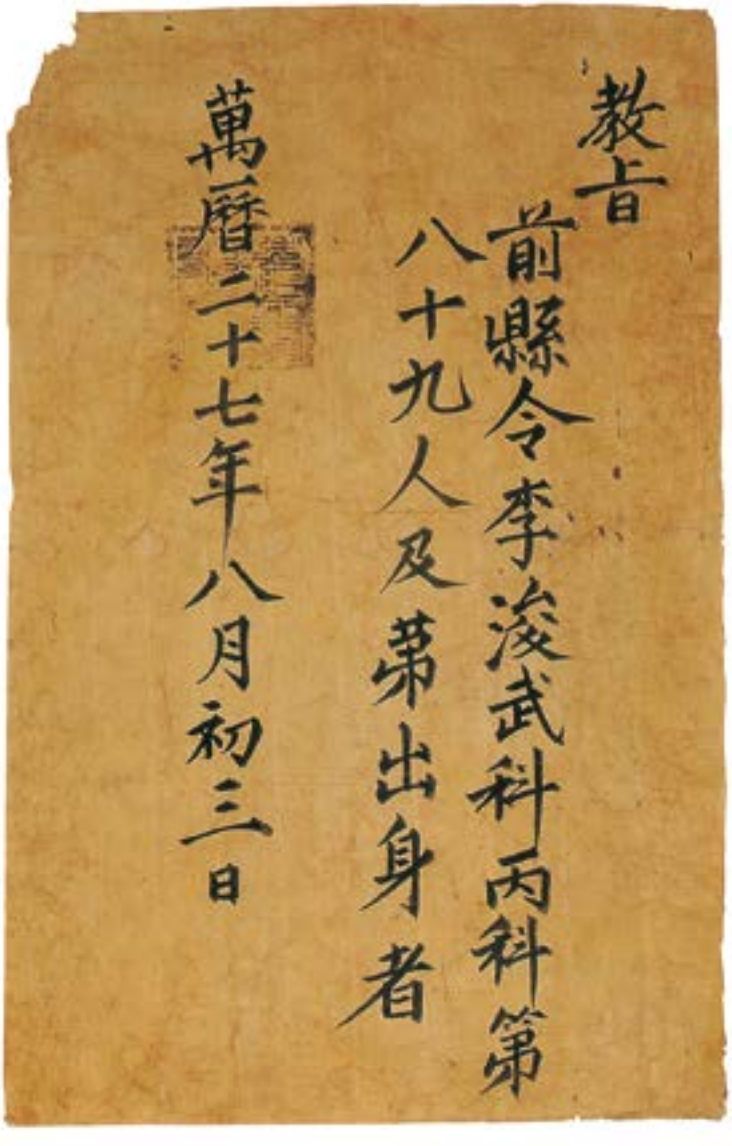


이준무과홍패

李浚武科紅牌

독락당 소장 / 1599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12호

현감이었던 구암 이준이 무과에 병과 제89인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과거 합격증이다. 홍패 紅牌 는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에게, 백패 白牌 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주는 합격증이었다.


教旨
前縣令李浚武科丙科第
八十九人及第出身者
萬曆二十七年八月初三日

이준선무원종공신녹권

李浚宣武原從功臣錄券

독락당 소장 / 1605 / 목활자본 / 1책

구암 이준을 선무원종공신에 책봉하면서 내려준 공신 증명서 錄券 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이순신, 권율 등 18명의 선무공신에 이어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거나 군사 물자들을 도운 공신을 가리키며, 총 9,060명에게 내려졌다.

이준통정대부고신

李浚通政大夫告身

독락당 소장 / 1608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15호

군량을 모으는데 큰 공헌을 한 구암 이준에게,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당상 堂上 의 품계인 정3품의 통정대부에 임명한다는 임명장 告身 이다. 이때부터 이준에게 '영감 令監 '이란 호칭이 사용되었다.

이준청도군수고신

李浚淸道郡守告身

독락당 소장 / 1610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17호

구암 이준을 경상도 청도의 군수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 告身 이다. 이때 이준의 나이 71세였으며, 이때부터 '이청도 李淸道'라고 자주 불렀다.

유학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명문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다

『구암유고 求菴遺稿 』

구암 이준은 아버지 이전인의 유지를 받들어 할아버지 이언적의 문집인 『회재집』의 간행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당대의 유명 인사들을 두루 찾아가 『회재집』의 서문, 발문과 이언적의 행장 등을 청하고 편집에 대해 문의하면서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구암유고』는 1941년경 구암 이준이 남긴 많은 편지와 시 詩 등을 모아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만든 3종의 교정본이다.

구암유고

求菴遺稿

독락당 소장 / 1941년경 / 필사본 / 3책

구암 이준의 사후 300여년이 흐른 뒤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작성한 3종의 교정본이다. 이준은 아버지 이전인의 유지를 받들어 당대의 유명 인사들에게 할아버지 이언적의 문집 서문과 발문과 행장 등을 청하고 편집 체제를 문의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구암유고

求菴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古3648-62-645 / 1941 / 목판본 / 1책

구암 이준의 사후 300여년이 흐른 뒤 간행된 목판본 문집이다.

구암유고 책판

求菴遺稿 冊板

독락당 소장 / 1941년경

구암 이준의 문집 『구암유고』를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이다.

4.

500년의 전통과 명예를 잇다

여주이씨 옥산문중은 회재 선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들 이전인, 손자 이준과 이순 형제를 거쳐 500년 역사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재 선생의 유지가 담겨 있는 가문의 심장 독락당과 계정, 어서각이 있었습니다. 독락당 종가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문서와 서책이 흩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었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온전히 보존하여 500년 역사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공직자의 모범을 살았던 회재 선생의 뜻과 발자취가 서린 사산 四山 과 다섯 개의 명승 오대 五臺 또한 독락당과 계정을 중심으로 옥산마을의 안팎 곳곳에 포진하여 회재 선생의 삶을 배우고 계승하고자 찾아드는 유생들의 필수 답사코스가 되었습니다. 관원 박계현 1254~1580 의 자계십육영 紫溪十六詠 , 하계 이가순 1768~1844 의 옥산구곡 玉山九曲 등 명문가의 유생들이 찾아와 남긴 많은 시문 詩文 을 통해 옥산마을은 성리학의 새로운 이상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독락당과 어서각, 옥산마을 전체가 조선 성리학의 이상향을 넘어 21세기의 우리들에게 공직의 가치 은은한 역사의 예향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꿈꾸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01 가문의 심장, 독락당과 어서각을 영구 보전하라

회재 선생의 유지가 담겨 있는 독락당과 계정,

자손의 궁핍함과 쇠잔함에 상관없이 대대손손 영구 보전하라.

「이준형제화의문 李浚兄弟和議文」

1601년 3월 12일 화의문

이 글은 (우리 두 형제가) 상의하여 합의한 것이다.

계정과 독락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문원공 회재 선생의 별장이다. 남겨놓으신 집이 완연하여 담장을 애호함이 간절하다. 우리 형제가 공경하여 지켜온 집은 겨우 물 뿌리고 쓸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다. 그러나 혹 후손들이 궁핍하고 쇠잔해질 것이 걱정되며, 불초하여 수호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남들이 보고 듣기에 어찌 괴이하지 않겠는가. 자손의 정의상 어찌 허물이 아니겠는가. 이에 형제간에 상의하여 약간의 토지와 노비를 내어 놓아 후일에 계정과 독락당을 수호하는 밑천으로 마련하려고 하니, 종자, 종손은 이 전민을 지켜 이 뜻을 폐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비 婢 만향의 둘째 노 奴 순이 15세, 비 婢 덕강의 넷째 비 婢 벽강 13세, 야마리에 소재한 기 起 자 16번 논 34짐 3뭇 1섬지기, 낙하포원에 소재한 23번 논 11짐 4마지기, 낙산원 연 蓮 자 12번 밭 15짐 2뭇 등을 계정과 독락당을 위해 출자하므로 후일에 자손 가운데 만일 이 전민을 가지고 다투려하는 자는 불효로써 논단할 일이다.

제주자필 형 통훈대부 경산현령 이준[서명]

증제 유학 이순[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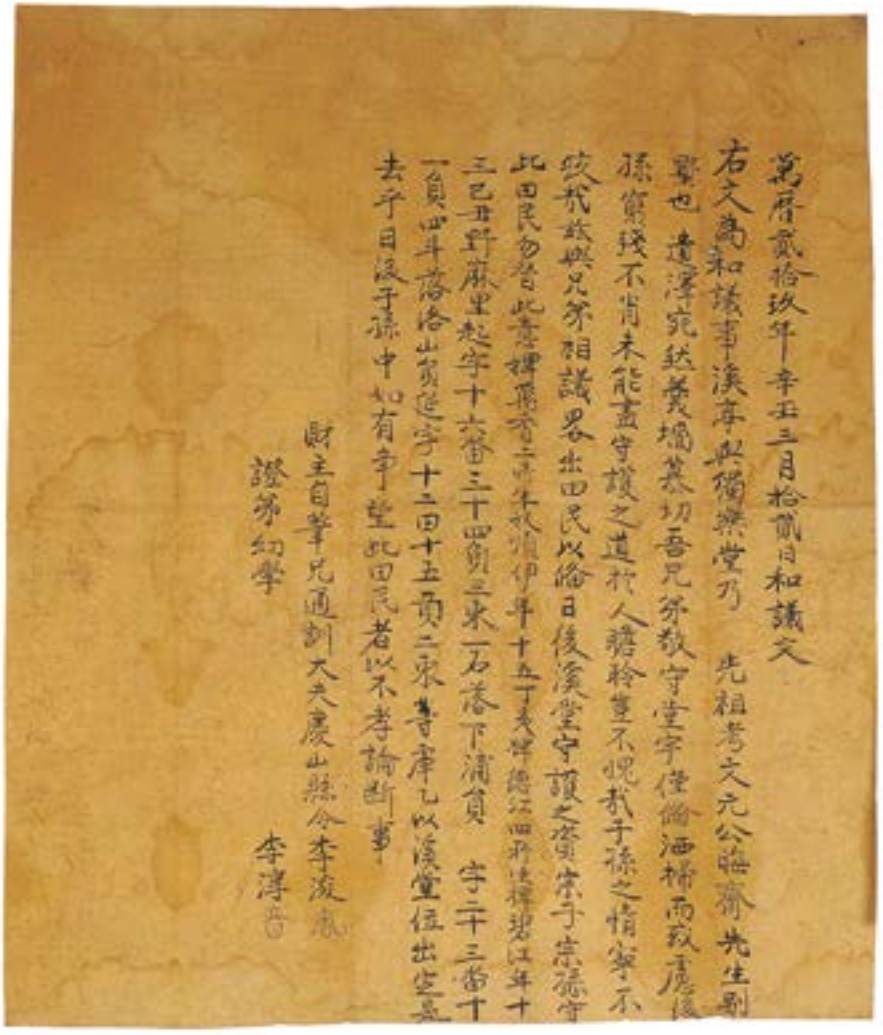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이준형제화의문

李浚兄弟和議文

독락당 소장 / 1601 / 필사본 / 1장 / 보물 제1473-64호

이준·이순 형제가 할아버지 이언적의 삶이 담겨 있는 독락당과 계정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 혹시라도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조상의 유업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다. 장남인 이준이 독락당과 계정의 영구 보전에만 사용할 재산으로 노비 2구, 논 19마지기, 밭 15짐 2뭇을 내어놓았다.



어서각에 보관된 회재 선생의 서책과 유품,

빌려주거나 빌려줄 것을 청하지 말고 영구 보전하라

「어서각수호간찰 御書閣守護簡札」

임진왜란에 (이언적) 선생의 옛 집이 다행히 병화의 재앙을 면하여 평상 시 선생의 손때가 묻은 서책과 유품들이 모두 보존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생의 학덕을 상상하는 것이 보통 심정보다 갑절이나 되니, 외부인들도 진실로 마땅히 애호하여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치 좋은 정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비길 수 없을 진대, 하물며 그 자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부터 크고 작은 서책은 자손들도 마땅히 남에게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비록 외부 사람들도 자손들에게 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찰사뿐만 아니라 경주부의 부윤 이하도 마을 어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사민 士民 들도 진실로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히 규칙으로 삼아 혹시라도 감히 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혹시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빌려가거나 빌려준다면 자손들은 불효하다는 이름을 받을 것이고 자손 아닌 사람들은 나를 범했다는 죄를 받을 것이니,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각자 특별히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1618년 11월 13일 관찰사 박(경신)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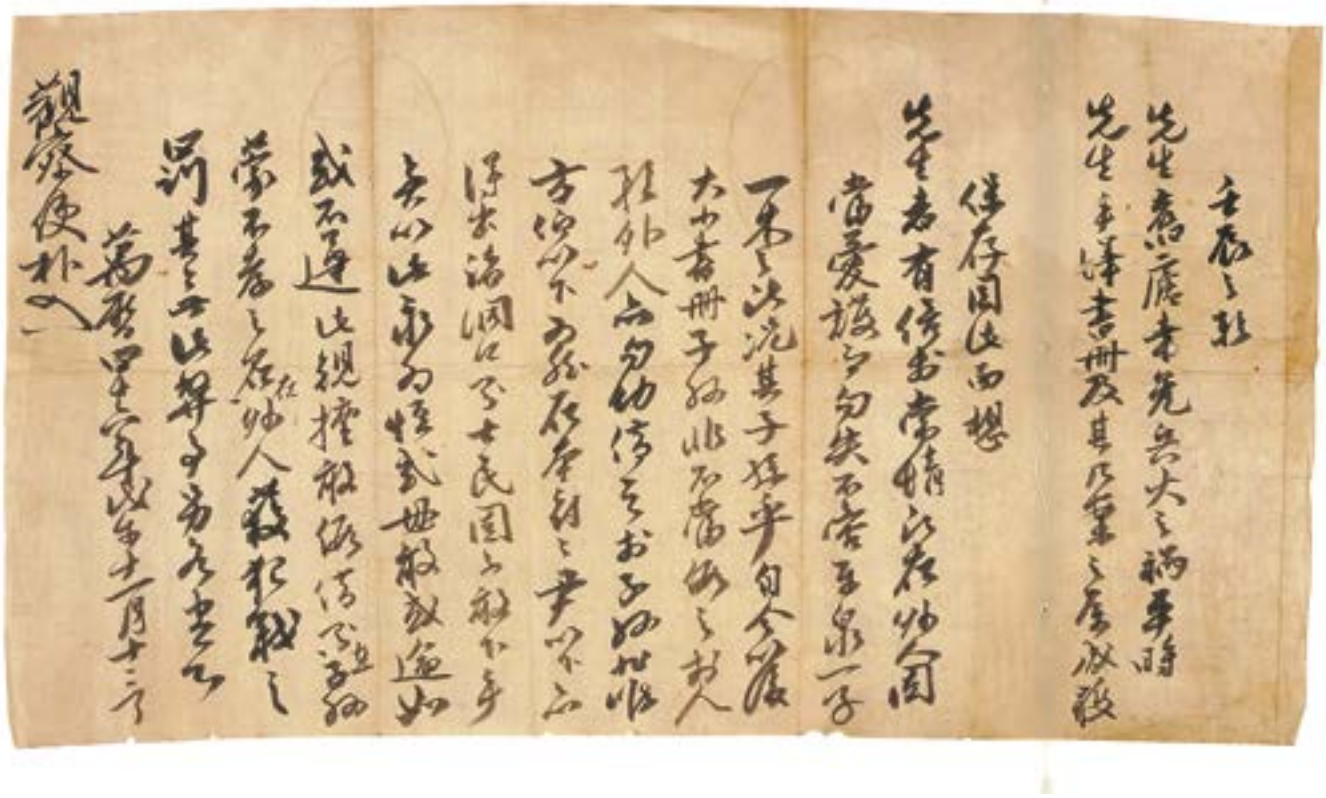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어서각수호간찰

御書閣守護簡札

독락당 소장 / 1618 / 필사본 / 1장

경상도관찰사 박경신 朴慶新, 1560~1626 이 작성한 편지다. 임진왜란 때 회재 선생의 옛 집과 서책이 모두 보존되어 선생의 학덕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손과 외부의 사람 누구도 마땅히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으면서 영구히 잘 보존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가문의 심장 독락당과 어서각을 500년 지켜온 주인들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	이언적(李彦迪)	1491~1553	11	이진연(李眞淵)	1778~1820
2	이전인(李全仁)	1516~1568	12	이태수(李泰壽)	1799~1857
3	이 준(李 浚)	1540~1623	13	이기원(李紀元)	1830~1879
4	이 굉(李 宏)	1567~1653	14	이병유(李秉裕)	1861~1922
5	이홍후(李弘煦)	1591~1675	15	이윤덕(李潤德)	1886~1912
6	이익규(李益圭)	1625~1716	16	이지락(李志樂)	1910~1963
7	이수담(李壽聃)	1665~1704	17	이원목(李元睦)	1928~1974
8	이의식(李宜植)	1692~1732	18	이해철(李海轍)	1949~현재
9	이희성(李希誠)	1720~1805	19	이용욱(李鎔旭)	1985~현재
10	이 립(李 岦)	1740~1805			

여주이씨세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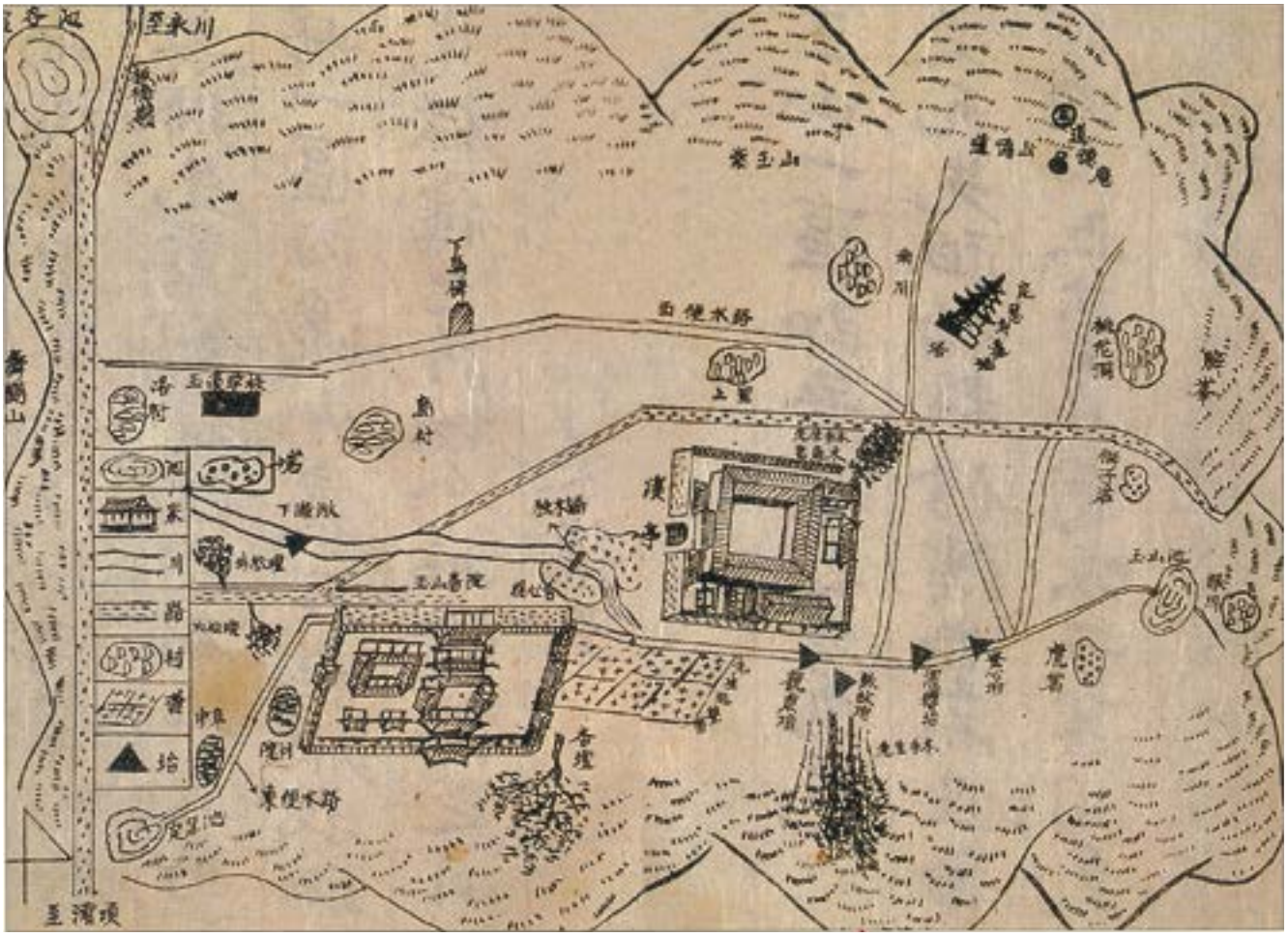
驪州李氏世譜

독락당 소장 / 1956 / 석인본 / 3책

회재 선생으로부터 이전인-이준으로 이어지는 여주이씨 옥산문중 후손들만 수록한 족보로 1956년에 간행되었다.

500여 년 보전된 옥산마을과 독락당

『여주이씨세보』 1956 **에 수록된 옥산마을의 지도**



02 명문 고위 공직자와의 교류를 지속하다

독락당의 옥산문중,

이전인·이준 이후에도 옥산문중은 장현광 張顯光, 1554~1637, 이정구 李廷求, 1564~1635, 이단상 李端相 1628~1669, 송시열 宋時烈, 1607~1689, 이희조 李喜朝, 1655~1724, 성대중 成大中, 1732~1809, 홍직필 洪直弼, 1776~1852, 송내희 宋來熙, 1791~1867 등 명문 고위 공직자와의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면서 받은 편지를 소중히 보전해 왔다.

「송시열서간 宋時烈書簡」

강 언덕 봉우리가 고요하여 그림자와 짝을 했더니 갑자기 편지를 받아 마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매우 위안되는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다만 벼슬에서 물러나신다는 말씀은 어떤 불안한 의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조금 즐길만합니다. (보내주신) 절삽 節笠, 단오 때 선사하는 부채 은 돌봐 주시는 마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무더위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1663년 6월 4일 복인 服人. 상복을 입은 사람 송시열 올림

추신: 이교관 李教官 은 거취를 위쪽에 올려 허락받았습니까. 번거롭겠지만 편지를 봉함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송시열서간

宋時烈書簡

독락당 소장 / 1663 / 필사본 / 1장 / 보물 제524-2-13호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지낸 우암 송시열 1607~1689 이 1663년에 독락당으로 보내온 편지다.

「송내희서간 宋來熙書簡」

자옥 紫玉, 옥산마을 의 형승은 매번 전해 들을수록 오히려 정신이 달려가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곧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력을 들어보니, 뜻을 입은 것이 매우 근면하고 착실하여 자옥의 주인을 만날 수 있었으니, 그 기쁨은 어찌 다만 옛날에 정신이 쏠렸을 뿐이겠습니까. 뜻밖에 심부름꾼이 와서 보내준 편지를 받으니 서로 헤어진 뒤로 남은 회포가 넉넉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객지에서 아무 일 없이 부모를 모시고 잘 지냄을 알았으니 어찌 기쁨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존경스런 선대 이전인 의 유고 遺稿 와 실기 實記 및 『관서문답록 關西問答錄』 등 서책은 삼가 받아서 읽어보고 사적 事蹟 이 상세함을 더욱 믿겠으니 실로 어리석은 저에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에 행장 行狀 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것은 제가 감당할 바가 아니고, 또 묘지 墓誌 와 묘갈 墓碣 등도 벌써 구비되었으니 이제 와서 추가로 짓는 것은 늦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거듭 여러분께서 정중하게 부탁하시니 마땅히 초본에 약간 수정하고 윤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얕은 식견으로 지은 글이 자유재량으로 선택하기에 걸맞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답답하고 근심스럽습니다.

저도 장차 늙어가는 무렵에 그런대로 지내는데 묵은 병이 이즈음에 심하여 누워서 보내니 매우 가련합니다. 여러 가지 보내주신 것은 더욱 멀리서 생각해준 정을 입었으니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마침 분주하여 우선 답장의 격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1846년 3월 24일 송내희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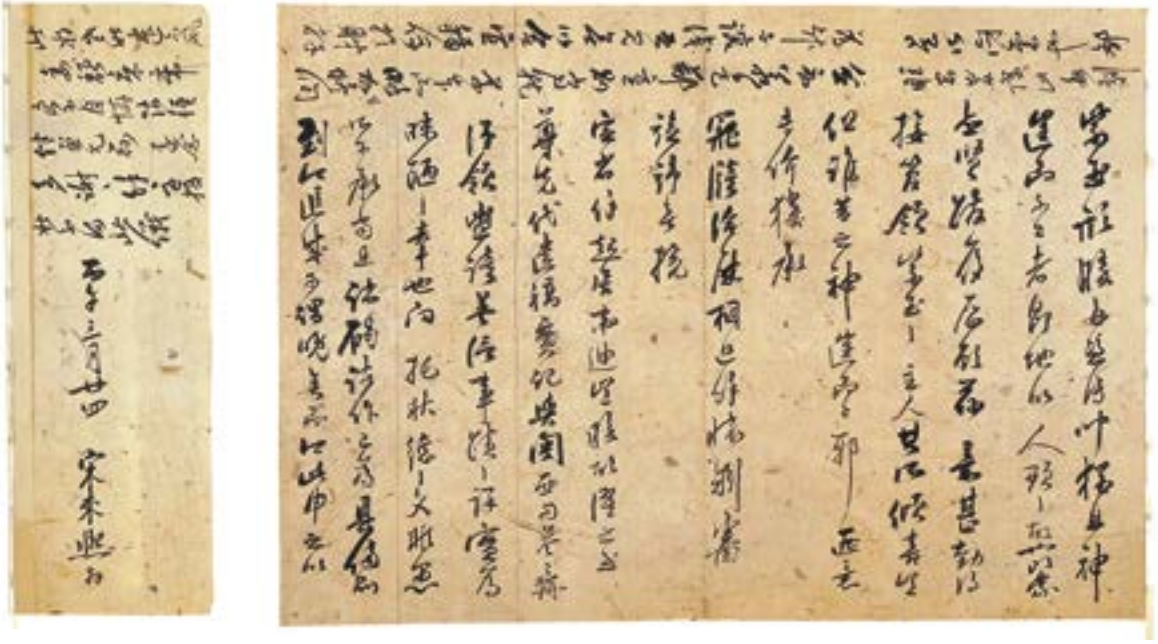
출처 『바위틈에 핀 들꽃』

송내희서간

宋來熙書簡

독락당 소장 / 1846 / 필사본 / 1장

대사헌을 지낸 금곡 송내희 1791~1867 가 1846년에 잠계 이전인의 문집에 들어갈 행장 行狀 을 지어달라는 부탁에 대한 답장으로 독락당에 보내온 편지다.



03 옥산구곡, 성리학의 이상향

관원 灌園 박계현 1524~1580,

생전에 뵈었던 회재 선생을 기리며 옥산마을 열여섯 풍경을 읊다.

박계현의 자계십육영 紫溪十六詠 14

1 자계곡구 紫溪谷口 15

자계곡 어귀에선 말 먼지를 날리지 말 것이니 谷口休揚馹騎塵 곡구휴양일기진
들판에 밭가는 사람[16]을 더럽힐까 두렵구나 原頭恐涴耦耕人 원두공매우경인
깊은 숲에서 이따금 만나는 삿갓 쓴 사람은 深林往往逢簑笠 심림왕왕봉사립
밝은 시대의 정자진 鄭子眞[17] 이 아니겠는가 莫是明時鄭子眞 막시명시정자진

2 용추 龍湫

물결 쏟아져 멈춘 곳이 이 용추이니 波瀾停蓄是龍湫 파란정축시용추
신물 神物[18] 이 굼틀대며 검푸른 물속에 노니네 神物蜿蜒黑處遊 신물완연흑처유
연못에 잠겨 잠만 잔다고 말하지 말지어다 莫道淵潛但貪睡 막도연잠단탐수
가물 때나 장마 때면 이곳에서 비느니라 旱天霖雨此曾求 한천림우차증구

3 세심대 洗心臺

자옥산은 높고 시냇물은 깊은데 紫玉山高溪水深 자옥산고계수심
넓은 바위 하나 있어 올라볼 만하네 盤陀有石可登臨 반타유석가등림
세심대 황폐하니 보이는 사람 없어 洗心臺廢無人見 세심대폐무인견
세심을 물어볼 곳 없어 서글피 바라보네 悵望無由問洗心 창망무유문세심

4 자옥산 紫玉山

자옥산 일천봉우리 맑은 하늘에 솟았으니 千峯紫玉落晴天 천봉자옥낙청천
빼어난 경치는 일찍이 국지 國誌[19] 에 전한다네 形勝曾於國誌傳 형승증어국지전
오늘 진면목을 보고 또 보노라니 今日看看眞面目 금일간간진면목
당장이라도 귀거래사 歸去來辭[20] 를 읊고 싶구나 令人直欲賦歸篇 영인직욕부귀편

5 독락당 獨樂堂

단청 丹靑 이 수수한 독락당에 丹碧非奢獨樂堂 단벽비사독락당
수레 내려 절하니 감동이 이네 下車磬折感衷腸 하거경절감충장
곤궁과 현달은 운명에 달렸으니 끝내 어쩌랴만 窮通所在終何事 궁통소재종하사
안표 顔瓢[21] 의 유장한 맛을 바꾸지는 않으리 不改顔瓢一味長 부개안표일미장

6 무학산 舞鶴山

독락당 앞에 솟은 무학산은 獨樂堂前舞鶴山 독락당전무학산
천년 만에 날아오는 학을 보는 듯 千秋如見鶴飛還 천추여견학비환

14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이미란 번역

15
자계곡구(紫溪谷口) : 박계현의 문집인 《灌園集》을 확인한 결과 〈紫溪十六詠〉에 나오는 맨 처음의 시는 제목이 없어서 임의로 〈紫溪谷口〉라는 제목을 생성하였다. 자계(紫溪)는 옥산서원 곁의 계곡이름이다.

16
밭가는 사람 : 은자를 의미함.

17
정자진(鄭子眞) : 서한(西漢) 말엽의 고사(高士)로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곡구(谷口)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은둔하였지만 그 이름은 서울까지 진동하였다 한다.

18
신물(神物) : 여기서는 용을 가리킨다.

19
국지(國誌)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1권 경상도(慶尙道) 경주부(慶州府)에, "자옥산(紫玉山)은 안강현(安康縣)의 서쪽 13리에 있다." 하였다.

20
귀거래사 : 동진(東晉) 시대의 도연명(陶淵明)이 지은 작품으로,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는 뜻을 담았다.

21
안표(顔瓢) : 안회(顔回)의 바가지라는 뜻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옹야(雍也)〉에 "어질도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한결같이 변치 않으니, 어질도다, 안회여.〔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飮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하였다.

혹 신선 왕교 王喬[22] 의 무리를 만나려는지 仙遊倘遇王喬輩 선유당우왕교배
산 위의 흰 구름만 부질없이 한가롭네 山上白雲空自閑 산상백운공자한

7 계정 溪亭

소박한 정자가 시냇가에 서 있으니 朴素溪亭壓水頭 박소계정압수두
십년 동안 계획하였던 하나의 토구 菟裘[23] 라네 十年心計一菟裘 십년심계일토구
그 당시 직접 심은 솔과 대나무는 當時手種松兼竹 당시수종송겸죽
풍상을 이겨낸 지 몇 년이나 되었나 戰勝風霜閱幾秋 전승풍상열기추

8 관어대 觀魚臺

누대에서 진종일 홀로 물고기 보노라니 臨臺盡日獨觀魚 임대진일독관어
지극한 즐거움 사물의 근원[24]까지 도달했네 至樂應須到物初 지락응수도물초
온갖 다른 사물 한 이치로 귀결하려 한다면 欲把萬殊歸一理 욕파만수귀일리
묻노니 그대는 일찍이 칠원 漆園[25] 의 글을 보았는가 問君曾見漆園書 문군증견칠원서

9 영귀대 詠歸臺

봄바람이 만물에 불어 향기를 다투는데 東風著物競芳菲 동풍저물경방비
봄옷을 막 해 입고 홀로 읊조리며 돌아오네[26] 春服初成獨詠歸 춘복초성독영귀
당시 도를 행하던 곳에 오래도록 앉았노라니 坐久當年行道處 좌구당년행도처
물고기와 새들도 기심 機心[27] 을 벗어났네 遊魚飛鳥解忘機 유어비조해망기

10 정혜사 淨慧寺

정혜사를 지은 지 몇 년이런가 淨慧伽藍創幾年 정혜가람창기년
등라덩굴 빽빽한 곳 하늘과 가깝다네 藤蘿深處近諸天 등라심처근제천
글 읽던 이 떠나고 선방 仙房 만 남았는데 讀書人去仙寮在 독서인거선료재
늙은 승려 여전히 어진 선비 그리워하네 耆衲猶能說大賢 기납유능설대현

11 징심대 澄心臺

징심대의 경치가 제일 깊고 그윽하니 澄心臺境最幽深 징심대경최유심
병풍 같은 푸른 절벽에 아름다운 나무 그늘이라 翠壁如屏嘉木陰 취벽여병가목음
게다가 맑은 못엔 벽옥 같은 물 담고 있어 更有清潭涵碧玉 갱유청담함벽옥
그리는 마음 어느 날에나 요금 瑤琴[28] 을 연주할고 相思何日奏瑤琴 상사하일주요금

12 탁영대 濯纓臺

옛 현인 이곳에서 얼마나 한가롭게 지냈을까 昔賢曾此幾閑行 석현증차기한행

22
왕교(王喬) :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 선인(仙人). 그가 일찍이 섭현 영(葉縣令)으로 있으면서 매월 삭망(朔望) 때마다 수레도 타지 않고 머나먼 길을 와서 조정의 조회에 참석하였다. 임금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그 내막을 알아보게 하니, 그가 올 때마다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왔다. 이에 그물을 쳐서 그 오리를 잡아놓고 보니 바로 왕교의 신이었다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82 方術列傳 王喬》

23
토구(菟裘) :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 있던 지명인데, 뒷날 은퇴하여 사는 곳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노나라 은공(隱公)이 환공(桓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서 "내 장차 토구 땅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늙으리라."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11年》

24
사물의 근원 : 《장자》 〈전자방(田子方)〉에 나온다. 공자가 노담(老聃)을 만나서 "선생의 모습은 마치 고목이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만물을 잊고 인간 세계를 떠나서 홀로 우뚝 서 있는 듯하였습니다." 하니, 노담이 말하기를, "나는 만물의 근원에서 노닐고 있었소." 하였다. 만물의 근원에서 노닌다는 말은 인간 세계를 초탈하여 천지자연의 상태를 즐긴다는 의미이다.

25
칠원(漆園) : 장자(莊子)를 가리킨다. 장자가 몽(蒙) 땅 칠원(漆園)의 관리(官吏)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26
봄옷을……돌아오네 : 자신의 일상에서 도를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공자(孔子)의 제자 증점(曾點)이 자신의 뜻을 말해보라는 공자의 명에 슬(瑟)을 울리다 말고, "늦은 봄날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쏘이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였다. 《論語 先進》

27
기심(機心) : 기심은 자신의 사적(私的)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묘하게 도모하는 마음을 말한다. 바닷가에서 아무런 기심도 없이 날마다 갈매기와 벗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부친의 부탁을 받고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가지자, 갈매기들이 벌써 알아채고는 그 사람 가까이 날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列子 黃帝》

28
요금(瑤琴) : 구슬로 장식한 거문고 또는 음색이 구슬처럼 아름다운 거문고로,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비유한다.

누대 아래 흐르는 냇물 바닥까지 투명하네 臺下溪流徹底淸 대하계류철저청
한 모금만 마셔도 온갖 시름 응당 없애 주겠지만 一鍤只應除萬慮 일삽지응제만려
감히 세속의 먼지 묻은 갓끈은 씻지 못하게 하네 令人不敢濯塵纓 영인불감탁진영

13 도덕산 道德山

자옥산과 잇닿아 울긋불긋 첩첩하여 紫玉山連紫翠重 자옥산연자취중
큰 두 산은 서로 자웅을 겨룬다네 堪將兩大較雌雄 감장양대교자웅
그저 산이 높은 것을 어찌 거론 하겠는가 等閑高幷何須說 등한고병하수설
선현의 높은 도덕에 견줄 만하다네 却比先賢道德崇 각비선현도덕숭

14 화개산 華蓋山

우뚝한 화개산 하늘 동쪽에 솟았으니 亭亭華蓋起天東 정정화개기천동
동해의 신선들이 찾을 만하다네 東海群仙若可從 동해군선약가종
산에 물어보려 하나 산은 대답을 않고 我欲問山山不語 아욕문산산불어
만학천봉으로 가슴 속을 씻어만 주네 千巖萬壑盪心胸 천암만학탕심흉

자계 紫溪

맑은 냇물 거슬러 오르니 소리 없이 고요한데 上盡淸溪靜不喧 상진청계정불훤
묻노니 그대여 어디서 참된 근원 찾으려는가 問君何地覓眞源 문군하지멱진원
석양에 지팡이 짚고 망연히 한참 섰노라니 倚筇斜日茫然久 의공사일망연구
졸졸 흐르며 취한 마음 씻어주는 여울물이 좋을 뿐 只愛潺湲洗醉魂 지애잔원세취혼

16 사자암 獅子巖

기괴한 사자바위 푸른 못에 누웠는데 獅子奇巖枕碧潭 사자기암침벽담
지금까지도 그 유적을 찾아보노라 至今遺跡付冥探 지금유적부명탐
만상이 모두 귀결되는 곳을 보려 한다면 要看萬象皆歸處 요간만상개귀처
이곳에다 모름지기 초막을 지어야 하리 此地終須結草菴 차지종수결초암

관원집

灌園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회 : 우촌古3648-25-68 / 1927 / 연활자본 / 1책

호조판서를 지낸 관원 박계현 1524~1580 의 문집이다. 1927년에 후손 박규화가 편집 간행하였으며, 회재 선생의 삶이 담긴 옥산마을의 「자계십육영 紫溪十六詠」이 수록되어 있다.

하계 이가순 李家淳, 1768~1844,

주자의 무이구곡에 견주어 회재 선생의 옥산구곡을 읊다.

옥산구곡 玉山九曲)[29]

원기 많은 동도 東都[30] 는 정신 기르기 좋으니 元氣東都好毓靈 원기동도호육령
자옥산 더욱 첩첩하고 자계 맑기 때문일세 紫山增重紫溪淸 자산증중자계청
외로운 배 띄워 진원으로 거슬러 오르려니 孤舟欲泝眞源去 고주욕소진원거
뱃노래 새로워라 굽이굽이 들리네 欸乃新聆曲曲聲 관내신령곡곡성

1 송단곡 松壇曲

일곡이라 시 읊는 단 壇 에 고깃배 매어놓고 一曲吟壇繫釣船 일곡음단계조선
길이 흐르는 물에 비치는 화산을 돌아보네 回看華岳映長川 회간화악영장천
늘 보던 물고기와 새는 사람에게 관심 없고 慣顔魚鳥無人管 관안어조무인관
푸른 솔만 저녁 안개 속에 서 있을 뿐이네 只有蒼松立暮煙 지유창송립모연

2 용추곡 龍湫曲

이곡이라 신령한 용추 수많은 산 옆에서 二曲靈湫傍亂峯 이곡영추방난봉
긴 세월 천둥과 비가 마음껏 쏟아졌네 長時雷雨任春容 장시뇌우임용용
사람들 모두 간절히 비[31]를 바라는데 蒼生擧切雲霓望 창생거절운예망
누가 상암 商巖[32] 을 조정 朝廷 과 소원하게 하였나 誰遣商巖隔九重 수견상암격구중

29
옥산구곡(玉山九曲) : 이가순(李家淳)의 하계문집(霞溪文集)에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이미란 학예연구사 번역.

30
동도(東都) :경주(慶州)를 말한다. 경주는 고려 시대 삼경(三京)의 하나인 동경(東京)이었기에 후대에도 동도로 불렸다.

31
비 : 해당 원문 운예(雲霓)는 구름과 무지개인데,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니 비를 뜻한다. 여기서는 가뭄에 단비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려줄 위정자, 곧 이언적을 비유한 듯하다.

32
상암(商巖) : 상암은 상나라 부암(傅巖)으로, 초야에 묻힌 어진 인재를 비유한다. 여기서는 부열(傅說)을 이언적에 비유한 것이다.

3 세심대곡 洗心臺曲

삼곡이라 세심대 달 아래 배 한 척 三曲心臺月一船(삼곡심대월일선)
정일 精一[33] 의 진수 眞髓 를 전한 지 천년 眞傳精一自千年(진전정일자천년)
인 仁 을 체득하고 선천학 先天學[34] 을 알게 되니 體仁會得先天學(체인회득선천학)
끝없는 풍월만 더욱 어여쁘다오 風月無邊更可憐(풍월무변갱가련)

4 공간곡 孔澗曲

사곡이라 원천 原泉[35] 에다 큰 바위 있어 四曲原泉又泰巖 사곡원천우태암
학 고개는 어느 때나 봉황의 모습이 될꼬 鶴巔何日鳳儀氈 학전하일봉의삼
졸졸 흘러 바다에 이르는 길 천리이기에 涓涓到海心千里 연연도해심천리
밤낮없이 맑고 깊은 못으로 흘러 들어가네 晝夜川流入空潭 주야천류입공담

5 관어대곡 觀魚臺曲

오곡이라 냇가의 정자는 경지가 더욱 깊어 五曲溪亭境更深 오곡계정경갱심
꽃에 물을 주고 대 울타리 치니 원림이 무성하네 澆花剖竹葆園林 요화부죽보원림
종일토록 관어대에서 물고기의 즐거움 깨달으니 臨臺永日知魚樂 임대영일지어락
활발 活潑[36] 한 천기 天機 는 성인의 마음과 합치되네 活潑天機契聖心 활발천기계성심

6 폭포암곡 瀑布巖曲

육곡이라 걸린 폭포 옥 물결 한 구비 六曲懸流玉一灣 육곡현류옥일만
청천벽력 날리는 우박에 사립문을 닫았네 晴雷飛雹掩松關 청뢰비박엄송관
별천지는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어 洞天迥與人煙隔 동천형여인연격
태극서 짓다보니 세월이 한가하네 太極書成日月閑 태극서성일월한

7 징심대곡 澄心臺曲

칠곡이라 징심대 푸른 여울에 비치니 七曲澄臺映碧灘 칠곡징대영벽탄
신령한 근원을 한 점 거울[37] 속에서 보네 靈源一點鏡中看 영원일점경중간
하늘의 구름 밤이나 낮이나 진경 眞景 인데 天雲日夜眞光景 천운일야진광경
작은 못의 차가운 활수 活水 가 더하였구나 添得方塘活水寒 첨득방당활수한

31
비 : 해당 원문 운예(雲霓)는 구름과 무지개인데, 구름이 끼면 비가 오고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니 비를 뜻한다. 여기서는 가뭄에 단비처럼 백성들을 잘 다스려줄 위정자, 곧 이언적을 비유한 듯하다.

32
상암(商巖) : 상암은 상나라 부암(傅巖)으로, 초야에 묻힌 어진 인재를 비유한다. 여기서는 부열(傅說)을 이언적에 비유한 것이다.

33
정일(精一) :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전일하게 지켜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것이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라고 한 순(舜) 임금의 16자 심결(心訣)을 가리킨다.

34
선천학(先天學) :〈선천도(先天圖)〉에 의거한 역학(易學)으로 복희(伏羲)가 만들었다고 한다.

35
원천(原川) : 源泉. 근원이 있는 샘물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근원이 있는 샘물은 퐁퐁 솟아 흐르면서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다. 그리고 구덩이가 파인 곳 모두를 채우고 난 뒤에야 앞으로 나아가서 드디어는 사방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학문에 근본이 있는 자도 바로 이와 같다.[源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8권 〈이루 하(離婁下)〉

36
활발(活潑) : 형이상의 도(道)가 천지간에 드러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시경》에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고기는 못에서 뛴다[鳶飛戾天, 魚躍于淵.]' 라고 한 구절에 대하여 정자(程子)가 "활발발한 곳이다.[活潑潑地]"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中庸 第十二章》

37
한 점 거울 : 푸른 여울을 말한다

8 탁영대곡 濯纓臺曲

팔곡이라 서늘한 못 바위 안고 트였는데　八曲寒潭抱石開 팔곡한담포석개
때 묻은 갓끈 다 씻고[38] 멋대로 감돌아 흐르네　塵纓濯盡任沿洄 진영탁진임연회
나에게 베풀어준 광명은 끝 없는데　光明惠我垂無極 광명혜아수무극
묘처를 누가 능히 체험할 수 있으리오　妙處誰能體驗來 묘처수능체험래

9 사암곡 獅巖曲

구곡이라 산이 높고 땅은 깍아지른 듯한데　九曲山高地截然 구곡산고지절연
복사꽃 눈에 가득하고 해오라기 물에서 조네　桃花滿眼鷺眠川 도화만안노면천
신령한 사자 한번 울어 잠자던 벌레 놀라 깨자　靈獅一吼驚群蟄 영사일후경군칩
만고의 혼돈세계 다시금 개벽이 되는구나　重闢渾淪萬古天 중벽혼륜만고천

38
갓끈 다 씻고 : 원문의 '탁영(濯纓)'은 갓끈을 씻는다는 말로,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어부가 굴원과 헤어지며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孟子 離婁上》《楚辭 漁父》

하계문집

霞溪文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古3648-62-848 / 1963 / 석판본 / 6책

사헌부 장령을 지낸 하계 이가순 1768~1844 의 문집으로, 권지삼 卷之三 의 시 詩 부분에 「옥산구곡 玉山九曲」이 수록되어 있다.

04 공직의 가치 은은한 역사의 예향禮鄕을 꿈꾸다

회재 선생의 저술, 한글로 번역되어 세상에 퍼지다

번호	책 제목	저자, 역자	연도
1	류숭조, 이자, 김정국, 이언적, 조광조, 서경덕 외	김규성 외 공역	1972
2	(국역)회재전서	묵민회갑기념사업회 편	1974
3	(국역)회재전서	이언적 저;이동건 편	1974
4	(국역)회재집	[고동주 저];이백순 역;김용장 편.	1989
5	(국역)회재전서	묵민기념사업회 [편]	1991
6	(역주) 대학장구보유 속대학혹문	이언적 저 ;조창렬 역	2008
7	회재집. 1-2	이언적 지음 ;조순희 옮김	2013
8	봉선잡의	이언적 지음 ;김윤규,신상구,이지락 옮김	2014
9	조선시대 최초의 제사 지침서 : 풀어 쓴『봉선잡의』	이언적 지음 ;김순미 옮김	2016

회재 선생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다

단행본

번호	책 제목	저자	연도
1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대경 편집	1966
2	회재 선생의 생애와 학문	이원균 저	1973
3	여강이씨와 회재선생	이성원 편저	1991
4	회재 선생과 옥산서원	이인기...등저	1992
5	회재 선생과 옥산서원	편저자: 신상구	1999
6	회재 이언적문학연구	장도규 저	2000
7	회재 이언적의 철학과 정치사상	묵민기념사업회 편	2001
8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조창열 저	2006
9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 경주 회재 이언적 종가	지은이: 이수환	2008
10	회재 이언적 : 난세의 성실한 자기경영자	이종호 지음	2010
11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이지경 저	2011
12	이언적 : 한국 성리학을 뿌리내린 철학자	김교빈 지음	2017

박사학위논문

번호	논문 제목	저자	연도
1	회재 이언적 한시연구	김시표	1983
2	회재 이언적의 심학사상연구 : 소(疏)와 연의(衍義)를 중심으로	서동건	1986
3	회재 이언적의 심성론 연구	김낙진	1987
4	회재 이언적의 시세계	장도규	1989
5	회재 이언적의 시에 나타난 자연관	김연호	1991
6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 연구	이지경	1992
7	회재 이언적의 정치사상에 대한 일고찰	문형진	1992
8	회재 이언적의 철리시(哲理詩)에 대한 연구	이영호	1993
9	회재 이언적 문학연구	장도규	1994
10	회재 이언적의 유학사상 연구	박건순	1996
11	이언적의 정치사상연구	이지경	1998
12	회재 이언적의 조영관(造營觀)에 관한 연구	이승민	2002
13	회재 이언적의 경학사상 연구 : 주자의 〈대학〉 〈중용〉 주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趙昌烈	2003
14	회재 이언적의 정치개혁사상	최종원	2003
15	회재 이언적의 한시에 내재된 건축공간 연구	金爽洙	2004
16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손승호	2006
17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강경림	2008
18	회재 이언적의 도학사상 연구	정태연	2009
19	이언적의 태극론	고성애	2009
20	회재 이언적의 철학사상 연구 : 『대학장구』개정을 중심으로	김진성	2010
21	이언적의 선대 음택과 양택에 대한 풍수지리적 연구	김상태	2010
22	회재 이언적의 성인교육사상 연구 : 성인교육자 및 성인학습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응목	2011
23	회재 이언적의 의리사상 연구	최옥녀	2015
24	회재 이언적의 공부론 연구	이래용	2017

역사의 보물,
독락당과 어서각의 고문헌이 연구되다

단행본

번호	책 제목	저자	연도
1	독락당 : 실측조사보고서(도판)	문화재청 [편]	2002
2	독락당 : 실측조사보고서(본문)	문화재청 [편]	2002
3	바위틈에 핀 들꽃 :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2007

석사·박사학위논문

번호	논문 제목	저자	연도
1	독락당과 향단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 계획과정에 의한 분석을 통하여	이창업	1999
2	독락당의 공간 표현과 사상에 관한 연구	박해성	2000
3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겹시각 구조에 관한 연구 : 관가정, 독락당, 윤증 고택을 중심으로	전지영	2001
4	시지각적(視知覺的) 관점에서 전통주거건축의 공간적 특성 연구 : 경주 독락당을 중심으로	이범식	2003
5	독락당과 향단에서 나타나는 체험적 공간에 관한 고찰	이옥련	2006
6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을 통해서 본 독락당의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우	2007
7	'임거십오영(林居十五詠)'의 시문분석을 통한 독락당 일대의 경관해석	강순영	2009
8	독락당 일곽과 향단의 경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방문정	2010
9	독락당/계정 건축의 상호텍스트적 작품분석 : 텍스트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김화정	2010

주손 이해철 선생,
옥산문중과 독락당을 위해 삶을 바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독락당 고문헌의 역사를 말하다

「조상 유품에 대하여」

독락당 유물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데는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도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철저한 숭모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필자가 일찍이 16세손 지 志 자 락 樂 자 조부장님[39]께 들은 이야기를 먼저 기록해본다.
일제강점기에 조부장님께서는 조선총독부에서 독락당 어서각에 『삼국사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지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리 『삼국사기』를 이웃집 장롱 속에 감추어 두고 총독부 사람들이 왔을 때 도둑맞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어서각을 샅샅이 조사하였고, 조부장님께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술과 식사를 대접했지만 『삼국사기』가 없자 '있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다음에 올 때까지 반드시 찾아 놓으라.'고 하면서 머슴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돌아갔다. 두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와 조사 끝에 『삼국사기』가 없자 두 번이나 뺨을 때렸다고 하셨다.
6.25 때는 식솔들과 피난처에서 먹을 것을 소에 짐을 실어 먼저 보냈고 조부장님께서는 모든 유품들을 마루 밑에, 장독 속에, 땅 속에 묻었다. 그리고 닭장의 닭 열두 마리를 망태기 속에 넣어 짊어지고 나오며 국군들과 함께 후퇴를 하셨다. 삼거리쯤 왔는데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듯이 '쉥~'소리가 진동하자 대열에서 벗어나 시티재 어현재 에 올라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니 망태기 속에 닭이 두 마리밖에 없더란 말씀을 하셨다. 이에 필자는 '할배는 닭이 없어지도록 무얼 했노.' 하니 '이놈아 총알이 빗발치는데 할배도 살아야지.' 하시길래 총알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
필자가 성장하면서 조부장님께서는 조상 신주보다 조상 유품을 더 중요시 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조부장님께서는 나에게 문오 文五 란 자 字 를 지어 주셨다.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문오야 세상이 빨리 변해 가는데 너는 영고록 永考錄[40] 을 보지마라.' 하셨다. 그리고 '우리 문중은 구암공파 동파 와 치암공파 서파[41] 가 있어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획죄어천 獲罪於天 이면 모소도야 無所禱也[42] 라.' 하셨다.

필자는 일찍이 조실부모를 당하여 여러 남매들 출가와 길·흉사, 봉제사 등 큰집 살림을 꾸려 나가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39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높여 부른 말이며, 할아버지의 자(字)는 의선(義善)이다.

40
집안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책.

41
구암공은 회재 선생의 손자인 구암 이준을, 치암공은 치암 이순을 가리킨다.

42
하늘에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결혼 초 직장 생활로 어렵게 사는데 족조 族祖 어른[43]께서 귀족스러운 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와서 간찰 簡札[44] 과 여러 고문서 한 뭉치를 700백만 원 줄 테니 팔라고 하셨다.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갔다. 700백만원은 40여년전 당시 집이 몇 채 값이었다. 필자는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갈등과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내권 아내 께서 조부장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어려우면 그때 가서 팔아도 그 값은 받지 않겠느냐고 하기에 용기를 갖게 되었다. 약속 일자에 세분이 오셔서 무얼 포은 선생의 시 하나 더 넣어 900백만 원, 나중에는 1,200백만 원 줄 테니 계약하자고 하였다. 필자는 '며칠 후 조부장님 제사가 있으니 제사를 지내고 봅시다. 내가 이걸 팔고 조부장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 족조 族祖 께선 '너는 평생 직장 생활이나 해라.'고 하시면서 갔다.

그 후 2002년도에 350점정도 보물로 지정 신청을 하여 전적류 13종 15책, 고문서 98점, 족자 17축[45]을 국가 보물로 지정 받았다. 그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문서집성』65·66권 발간에 이어 『바위틈에 핀 들꽃』을 발간하게 되었다. 근자에 와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3년 넘게 빠짐없이 조사하여 『독락당 고서목록』이 정리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독락당 어서각 소장 고문헌은 보존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난, 화재 등을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이나 문중 또는 단체에서 관리능력 부재시에는 국가에서 영구보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43
집안 어른.

44
편지.

45
회재 선생이 짓고 퇴계 선생이 쓰신 사산오대(四山五臺)와 원조오잠(元朝五箴).

『비화원』[46]에 투고한 이해철 선생의 글

1호(2001) : 「옥산 독락당과 기적비」

2호(2002) : 「우리 고장의 효와 얼」

3호(2004) : 「안강 마을과 산야 山野 」

4호(2004) : 「제사 축의 의미」

5호(2005) : 「회재 이언적 선생의 고문서 소장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9호(2009) : 「회재 이언적 선생의 옥산 정착에 대한 환경적 영향」

12호(2012) : 「회재 선생과 독락당의 건축학적 의미」

16호(2016) : 「독락당을 이해하는 길」

18호(2018) : 「독락당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

46
신라 때 안강을 비화원(比火原)이라 칭하여 안강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2000년에 안강 문화연구회를 결성 조직하고, 2001년에 경주시 거주 교사 교수 등을 영입하여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19호가 간행되었다.

5.

가문의 자산에서 국민의 자산으로

국가대표도서관 National Library 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외에 소장된 우리나라 모든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의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개인과 가문 등 민간에 소장된 고문헌을 발굴하여 조사와 정리, 이미지 촬영 등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리는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문에 소장된 고문헌은 전문 인력은 고사하고 시설이나 자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보존뿐만 아니라 조사·정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게다가 고가 高價 의 고문헌을 겨냥한 도난, 도난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위험 때문에 소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공포가 상존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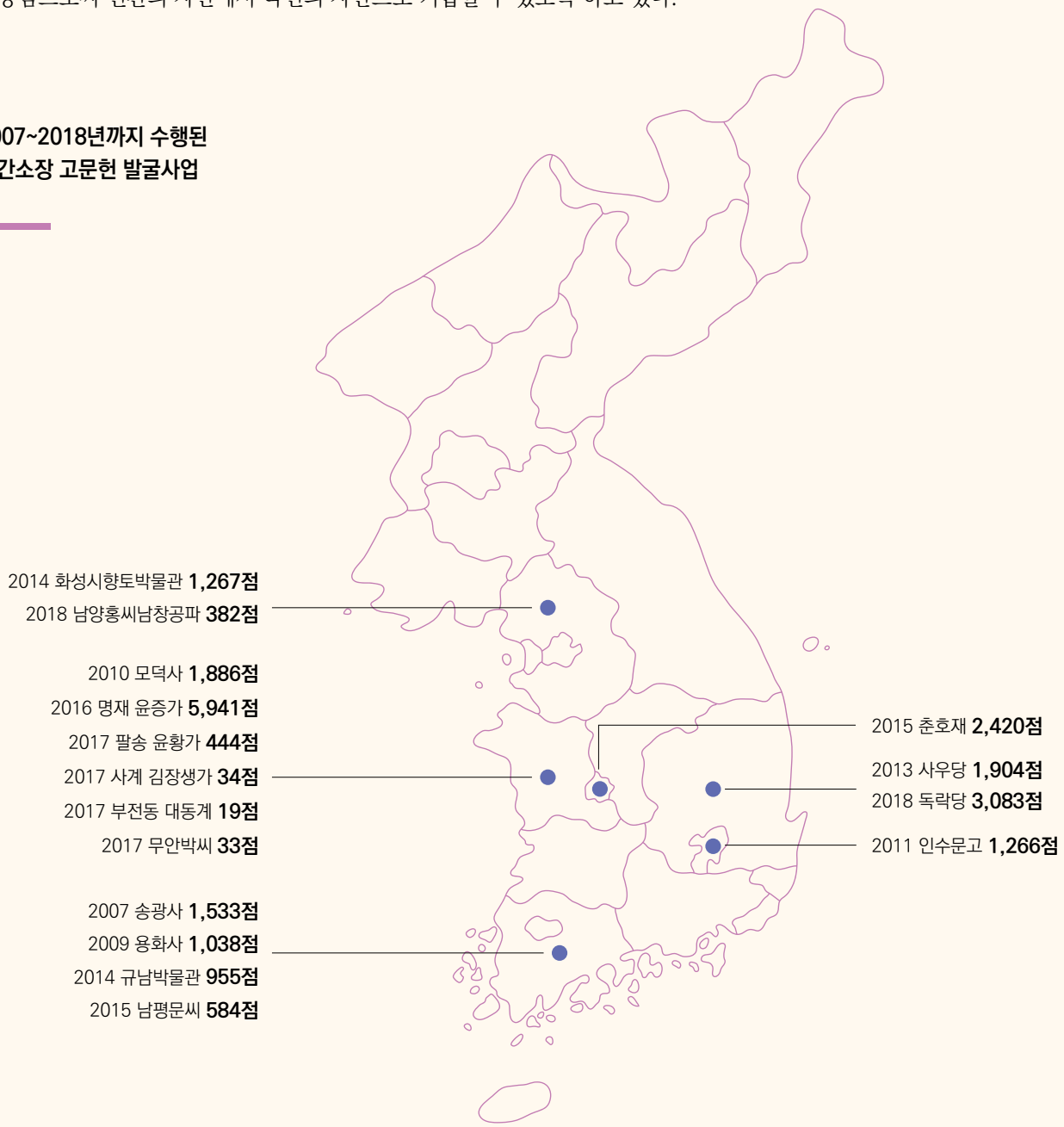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통해 확보된 목록 및 이미지 정보는 소장자에게 모두 제공되고,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을 통해 대국민 이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개인 또는 가문의 자산이 국민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되며, 소장자는 도난과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일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매개로 여주이씨 옥산문중의 독락당 종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만나 가문의 자산이 국민의 자산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순서대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는 2007년부터 민간 소장자와 협의를 통해 소장 고문헌에 대해 조사·분류·정리를 수행하고 원색 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는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된 정보는 『고서목록』으로 간행하여 디지털 파일과 함께 소장자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목록 및 원문DB 정보를 고문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 업로드 시켜 모든 국민에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자산에서 국민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2018년까지 수행된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의 결과 발행된 「고서목록」

모덕사 慕德祠, 2010

인수문고 仁壽文庫, 2012

규남박물관 圭南博物館, 2014

의성김씨사우당종택
義城金氏四友堂宗宅. 2014

보성남평문씨 寶城南平文氏, 2015

춘호재 春湖齋, 2016

독락당 獨樂堂, 2018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국내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흩어져 있는 한국 고문헌의 서지 및 원문DB 정보를 통일적으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한국 고문헌 전문 사이트다. 2004년에 1차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5년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지식정보자원으로 지정받아 구축 실현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국내 72개 기관과 민간 소장 고문헌, 일본동경대학도서관 등 국외 48개 기관 소장 한국 고문헌의 목록 정보 47만 건, 원문DB 정보 5만 3천여 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고문헌은 약 100만 건 223만여 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축한 47만여 건을 제외한 약 53만여 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홈페이지 기관별 찾기와 독락당

국내

국외

독락당과 국립중앙도서관이 만나다

2015년 12월 여주이씨 옥산문중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을 제외한 독락당의 고서와 고문서 3,043종에 대해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에 목록 및 원문DB 입력을 완료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독락당의 고문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독락당의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 경과

시기	내용
2015. 12.	독락당 소장 고문헌 서지 및 원문DB 구축 협의
2016. 1.	1차 조사 및 정리
2016. 2.	2차 조사 및 정리
2016. 12.	3차 조사 및 정리
2017. 2.	4차 조사 및 정리
2018. 2.	5차 조사 및 정리
2018. 5.	6차 조사 및 정리
2018. 6~7.	서지목록 작성 및 서지DB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입력
2018. 12.	원문DB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입력 완료 (3,083건) 『독락당 고서목록』간행
2019. 10.	'회재 선생,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특별전 개최

독락당 고서목록

獨樂堂 古書目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청구기호 : GP017.1-19-1 / 2018 / 1책

독락당의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사업 후 정리한 고서 384종과 고문서 2,540종 등 총 3,043종의 서지정보를 수록하였다.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총괄 박경숙
기획 봉성기, 이기봉
글 · 편집 이기봉

발행일 2019년 10월 11일
발행인 서혜란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 · 590 · 0505
팩스 02 · 590 · 0712
홈페이지 www.nl.go.kr

인쇄 원화 02 · 2266 · 4410

ISBN 979-11-89585-73-0(0601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50-14

회재 이언적

독락당의 보물 서울나들이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06010
9 791189 585730
ISBN 979-11-89585-73-0